雲門

불기 2562년
봄호
통권 제144호
雲門寺僧伽大學

구름문을 떨치다

- 어김없이 봄은 오고, 우리들의 봄학기도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이 될 화엄반의 이 봄이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 대교과 도안
- 노오란 개나리, 분홍 진달래, 벚꽃… 산등성이마다 푸릇푸릇 싹을 틔우는 나무들의 합창소리, 이목소의 물소리가 법음으로 울려 퍼지는 숲속교실 금당에서 오순도순 살고 있는 사교반입니다. 청풍료를 떠나, 열정적이고 멋진 세 분의 교수스님들께 경을 배우고,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울력을 하면서 사교반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치문, 사집 동안은 '안 하고 안 먹자'로 보냈던 저희 반이 화전도 구웠습니다. 해 본 적 없는 전을 구워 복을 짓겠다고 자원한 스님들이 올망졸망 어깨를 붙이고 전을 굽는 모습이 정말 즐거워 보였습니다. 이 즐거운 마음이 후원에 매일매일 가득해서 음식 속에 쑥쑥 들어가 대중스님들의 건강이 매일매일 좋아지길 기원합니다. 대중스님 여러분! 맛있게 드셔주세요. / 사교과 일동
- "心緖多端이나 重處偏墜로다"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은 어디로 기울어 움직이는가!
  하루하루 마음을 잘 써서 모두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 사집과 여목
- 땅이 주는 가르침을 몸소 배우는 원두반으로 또 한번 성장하길. / 사집과 정현
- 虎踞山下雲門寺에 春降天花示吉祥이로다 莊嚴道場花爛漫이니 只剩決活作佛去로다 / 사미니과 수완
- 초발심이 졸업 때까지! 미우나 고우나 함께 힘 모아 잘 살아봅시다. / 사미니과 영림
- 씻는 시간마다 스릴 넘치지만 행복합니다. 정통대장스님께 감사합니다. / 사미니과 진정

불기2562년 통권 제144호 봄호

雲門

목차

02 호거산 운문사 — 구름문을 펼치다

04 죽림헌 —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명성

06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 독백-하루는 한 생이다 영덕

08 교수논단 — 선시禪詩와 그 사적史的 개관槪觀 2 원범

12 학인논단 — 『대승기신론』의 훈습熏習에 대한 고찰 2 혜선

17 쌤 — 부처님 마음과 같이 여묵, 도욱

18 선지식탐방 — 가장 좋은 경, 간경看經
– 범어사 승가대학 학장 용학龍學 스님 탐방기 도명

22 운문만행 — 숨과 마음을 보며 쉬어가는 곳
사마타 · 위빠사나 수행처 '붓다선원' 1 혜정

26 방부소감 — 봄꽃처럼 밝고 환하게 치문반

28 수행의 두레박 하나 — 세 가지 소원 법운

30 수행의 두레박 둘 — 도현度泫 스님의 참회, 감사, 발원 도현

32 수행의 두레박 셋 — 재발심 보경

34 운문, 운문인 — 새 스님들의 새봄맞이 편집부

36 차례법문 —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서 지선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인우

40 외부기고 — 낮은 곳에 임하소서 원빈
재미있는 '짧은 글'로 시작한 나의 한문 공부 김병기

49 깨달음으로 가는 길 — 내소사 도종환

50 이 한권의 책 — 리틀 붓다 – 행복을 찾아서 선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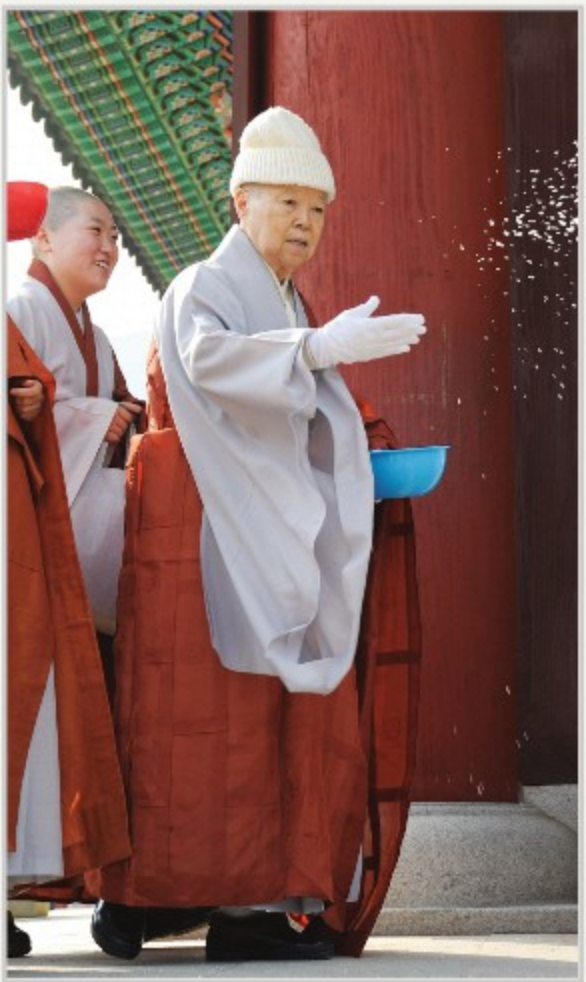
52 운문논평 — 화엄반 자비탁발을 다녀와서 편집부

54 운문소식

55 등불 — 황권적축黃卷赤軸 편집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명성 / 운문사 회주



2018년 3월 24일 신중기도 회향 후 화재방지 소금뿌리기

신입생 스님들과 학인스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듯 개학날 흠뻑 소담스러운 눈이 내려 설경이 장관이었습니다. 운문사에 입학한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을 마치고 늠름한 모습으로 개학을 맞이한 우리 학인스님들 봄 학기를 활기차게 시작하셨겠지요.

춥고 눈 내리던 겨울은 어디로 사라지고 화사하고 따뜻한 봄이 한창입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평생 공부를 하시는지요? 어려운 불교를 꼭 그렇게 배우고 익히며 애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교공부는 하지 않지만 그냥 마음을 잘 쓰면서 살면 안 될까요? 불교가 무엇인지 잘 몰라도 세상에는 훌륭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출가 수행자가 되어야 했던 이유와 이렇게 어려운 대중생활을 하면서 수행해야 하는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당나라 때 규봉종밀은 불교교학을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 중 첫 번째가 인천인과교人天因果教입니다. 즉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업을 쌓으면 인간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는 좋은 과보를 받게 된다는 내용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철학과 인문학은 바로 이것을 권장하고 독려합니다만 불교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과를 믿고 공덕을 쌓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수행의 기본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경에서도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보시한 공덕보다도 금강경 사구게 한 구절을 수지독송한 공덕이 훨씬 수승하다고 말하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불교의 게송 한 구절이 우주에 가득한 칠보로 보시한 공덕보다 수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는 것이란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진 세계 즉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모든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란 언어와 분별을 떠나 있는 불이不二, 부동不動의 진여의 세계입니다.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무상無常하며 공空이고 무자성無自性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고, 또 변하지 않는 진리의 세계가 존재함을 믿고 그곳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교의 게송 한 구절은 끝내 우리를 삼계화택 윤회에서 벗어나 진여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어떤 종류의 불교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더라도 목적은 모두 깨달음을 향해 있습니다. 좌선을 하든 염불을 하든 경전을 공부하든지 소임을 살든지 수행자들의 관심사는 진리이고 깨달음이어야 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無所得' 얻을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그대로 완벽한 부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승에서의 믿음이란 다름 아닌 나의 진여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진여의 세계가 지금 여기를 벗어나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전일념現前一念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론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진실하고 지극한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세세생생 정진하고 정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인스님 여러분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내 마음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깊이 사유해보시길 당부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독백 - 하루는 한 생이다

영덕 / 운문사승가대학 교수

진보랏빛 어둠 속에서

세 시간이 지나갔다. 좀 길긴 하여도, 새벽기도를 마친 나는 오전 다섯시 오십분 아침 발우 시간 전에 이미 한 생의 반을 산 것이다. 남은 시간은 대중과 함께 동사섭하며 수업을 하거나 수업을 듣거나 약초를 캐며, 오고가는 인연 상선약수上善若水에 맡길 따름인데.

삶! 그리고 하루! '나는 누구인가'

서로의 업력이 모이고 흩어지며 흐르는 물결! 도도하다. 운문사雲門寺 대중 속 하루 일상 가운데 나는 수레바퀴 깎는 노인처럼, 때론 독 짓는 할멈처럼 등 구부리고 앉아 하염없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누구나 그러하듯 때론 삶의 무게에 지친 날도, 아주 가끔 하늘 맑은 날 천태산 마고할미天台山麻姑[1] 처럼 바람 타고 주유천하周遊天下 하는 날이 없지는 않지만, 물론 한 발자국도 담을 넘지 않은 사유의 여행일 뿐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삶인가? 나는 평생 자신을 사랑하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이러한 삶의 리듬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 확실하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기다리지 않아도 마지막 순간이 오리라는! 그 최후의 살림만큼은 정리되지 않은 자료에 눌려 너절스럽지 않기를 고대할 따름이다. '대중 속에서 몸을 썩히며 마음을 잡들고 살아야 한다.' 딱히 참선 아닌 것이 없다지만 미완의 수행은 풀끝에 맺힌 이슬처럼 존재감이 없다.

난 무엇을 한 것일까?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기는 한 것인가? '이십년 후 어떤 사람이 스승에 대해 물어오면 무어라고 대답하오리까?', '그저 그렇고 그런 노장, 그렇게 살다 갔노라고 하라.' 꼭 마음에 드는 한 말씀이다. 임종에 임해 눈물[2] 짓는 후래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는 선지식은 담담하다. 행주좌와에 이렇고 저런 특별한 삶의 궤적을 담아내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숨 들이쉬고, 숨 내쉬는 가운데!

수행 대중의 기본 청규 안에서 평등한 배려와 성숙한 사유를 고민하고 남을 인정하면서 나답게

1) 天台山 麻姑할미 – 한국의 민속 신화에 나오는 신으로 삼신할미처럼 우리나라 고유의 창세 신화와 관련 있는 지모신이다. 각 지방마다 마고와 관련된 설화 민담 전설이 여러 가지로 변형되어 전승됨을 알 수 있다.

2) 동산양개 화상의 스승 운암담성 스님의 열반 직전 유훈 "그저 그렇게 살다갔다 하라." 서암 큰스님 열반어 "그 노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다고 해라."

살려고 노력한다. 있는 듯 없는 듯 부족함 속의 자족을 만끽하며 평범 속 미학을 주절댄다. 별업의 자가당착, 끊임없이 지워간다. 꽁꽁 묶은 이율배반적 매듭도 풀고, 아인我人의 조림稠林도 쳐낸다. 과장된 행동과 사유를 경계하고 인위적 작위와 허세도 쪼아낸다. 자연스러움. 천연天然은 구경究竟이다. 오늘도 삼층석탑을 닮고 싶어 엄정嚴正, 견고堅固, 인내忍耐를 가슴에 쓰며 나름 절제 속에서 살아가지만, 살아도 살아도 남는 건 늘 부끄러움뿐이네.

또 하루!

소리도 없이 새벽이 오고 빛 바랜 채 다시 날이 저문다. '이대로 좋은가?' 구태의연한 자문자답조차 진부하여 무채색 공간 속에 홀쩍 몸을 누인다. 차곡차곡 쌓인 오늘이 미래가 되는 것.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 점점 단출하고 명료해진다. 좋다. 오랫동안 한 자리에 구겨 앉아 질박하게 잘라낸 규격화된 시간들, 질이 잘 든 규율 속에서 꿈꾸어온 노마디즘[3], 창밖을 바라보며 꿈꾸는 사유가 없었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지독한 자기모순 속에서 오히려 힘을 만들며 살아 왔다. 이젠 애쓰지 않고 시간 속에 나를 맡기고 흐를 뿐이다. 오늘도 나는 사람과 사물들, 자연과 시간을 떠나보내며 혼자 경건하게 이별의식을 한다. 진언으로 깨끗이 씻어내어 토닥토닥 감아서 충분히 슬픔의 결을 삭힌다. 헤어짐이 섭섭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지. '아듀! 잘 가라 그대! 아프지 말고, 피차 뒷모습이 아름다운 좋은 추억으로 다시 만날 때, 배나 성숙하여 있으라.' 무정無情할사 세월을 유정有情으로 보내고자 하는 나의 순정純情에 또 한 방망이 맞는다. - 무정과 순정 사이 너의 짐이 무겁겠구나. -

매일 반복되는 새벽, 참회와 감사와 발원의 기도는 보랏빛이다. 좀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어지는 나의 기도는 세상을 향해 문을 연다. 고향에 다녀온 후 늙으신 부모님의 모습은 괴고壞苦[4]의 절대경험이다. 아침기도가 좀더 길어졌지만 이것으로 오늘 하루 나의 새벽기도는 충분하다. 많은 일을 하려 않는다. 다만 당처에서 순간순간 충실하자. 기도를 마친 나는 이미 반생을 잘 산 셈이다.

2018, 무술년戊戌年! 봄날이 간다. 하루는 한 생이다.

그림 / 대교과 도행

3) 노마디즘(nomadism) –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며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철학적 개념. 살 곳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는 유목민 노마드(nomad)에서 나온 말.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Gilles Deleuze)와 정신분석학자인 펠릭스 가타리(Felix Guattari)가 주목한 유목적 삶으로 기존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불모지를 옮겨 다니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일체의 방식과 사유의 여행을 뜻한다. 현대사회의 문화 · 심리 현상을 설명하는 말로도 쓰인다.

4) 삼고三苦 – 현실 세계에 살아가며 누구에게나 따르는 諸行無常의 세 가지 고통.
① 苦苦 – 본인의 육체적 아픔과 정신적 번민으로 오는 生老病死의 고통.
② 壞苦 – 좋아하고 애착하는 대상이 무상하게 변화하는데서 오는 고통.
愛別離苦, 怨憎會苦, 求不得苦.
③ 行苦– 행위마다 자아에 집착해서 윤회의 업을 짓기 때문에 따르는 고통. 五陰盛苦

선시禪詩와 그 사적史的 개관槪觀 [2]

원법 / 운문사승가대학 교수

목 차

Ⅰ. 머리말

Ⅱ. 선시의 특징과 전개
1. 선의 의미
2. 선시의 시원始原과 특징

Ⅲ. 고려 조선대 선시의 전개양상

Ⅳ. 맺음말

Ⅲ. 고려 조선대 선시의 전개양상

1. 고려대의 선시

중국에서 형성된 선禪과 선사상禪思想, 그리고 선시禪詩는 동아시아 보편문화와 종교의 차원에서 한반도에 전래되어 이른바 한국적 선사상과 선시가 형성된다.

나말려초羅末麗初에 많은 승려들이 입당구법入唐求法하고 귀국하여 구산선문九山禪門을 형성한 이래 보조지눌普照知訥(1158~1210)에 의해 실천적 수행을 통한 독창적인 선사상과 선지가 선양되었다.

지눌은 불립문자不立文字 ·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선의 종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글에 구애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만약 언어에 집착하게 되면 그 언어가 비록 법을 담은 것이라 할지라도 과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였다.[15] 이후 진각혜심眞覺慧諶(1178~1234)에 의해 지눌의 법이 계승되고 고려에서는 16국사가 배출되어 선법이 선양되었다. 혜심은 공안집인 『선문염송禪門拈頌』 30권을 편찬하고 그 서문에서 문학의 효용을 강조하였는데 시를 위한 시, 문학을 위한 문학이 아닌 전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 형식을 택하였다. 이러한 시문학관은 선시 문학의 일관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혜심에 의해 한국 선시가 본격화된다.[16] 물론 혜심 이전에도 선가의 시풍詩風을 드러낸 승려들이 있었다.[17] 그러나 그들은 특징적이며 본격적인 시세계를 성립시키지는 않았다.

春深院落淨無埃 깊은 봄 산사는 깨끗하여 티끌이 없는데
片片殘花點綠苔 푸르른 이끼 위에 꽃잎들이 진다.
誰道少林消息絶 그 누가 소림의 소식 끊겼다하리
晩風時送暗香來 저녁 바람에 꽃향기 실어 오는데.[18]

지눌이 원적한 날 상당上堂하여 지은 추도시追悼詩로 육신은 갔으나 법신은 남아 향기로 전해진다는 것을 선미禪味와 자연미自然美로 조화시켜 읊었다. 이렇게 혜심은 선禪을 이론으로서보다 경절언구徑截言句의 시詩로써 주로 나타내었다.

혜심을 이어 수선사修禪寺 제 6세이며 『동문선東文選』에 승려로서는 가장 많은 수의 시문이 실려 있는[19] 원감충지圓鑑沖止(1226~1292)는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를 주창하고 산거자락山居自樂하는 시들과 함께 냉혹한 비판을 시로 승화시킨 사회시社會詩 · 농민시農民詩 계열의 시작품을 남기기도 하였다.

牛馬無完脊 소와 말도 온전한 등이 없고
人民鮮息肩 백성들은 어깨 쉬기가 드무네.
凌晨採葛去 이른 새벽에는 칡뿌리 캐러 가고
踏月刈茅還 달빛 밟으며 풀 베어 돌아오네.[20]

장편인 이 시는 사실적인 묘사로 충지의 농민에 대한 애정과 현실인식을 잘 드러내었다. 이 시기 신진사인新進士人의 등장과 함께 새롭게 나타난 농민을 제재로 한 사회시社會詩·농민시農民詩의 계열로서 전대 문학과 구별되는 문학적 전환을 가져온 사실적인 예이기도 하다.[21] 충지는 선시가 종교적 보편주의라든가 자비심의 테두리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벗어남으로써 선시의 영역을 확장시킨 인물로 평가받는다.[22]

충지 이후 백운경한白雲景閑(1299~1375)과 태고보우太古普愚(1301~1382), 나옹혜근懶翁慧勤(1320~1377) 등이 선시를 잇고 있다.

백운경한은 "교敎는 바로 부처의 말이요 선禪은 곧 부처의 마음이다. 그리하여 부처의 마음과 말은 결코 서로 어긋난 것이 아니다."[23]라고 선교일치 사상을 시로 풀어내었다.

태고보우는 철저한 선승禪僧이면서도 교학사상을 떠나지 않았고 유자와의 관계도 깊었다. 그는 자성미타自性彌陀, 유심정토사상唯心淨土思想을 시로 표현하고 있다.

나옹혜근은 선풍을 진작시키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사사무애事事無碍, 유심唯心의 선적禪的 표현 경향이 강한 선시를 남겼다. 또한 장편시와 가사歌詞를 남겼는데,[24] 이들 고려시대 선시는 한국 선종의 발달사 속에서 임제풍의 영향을 받은 특징적 면모를 지니고 있다.[25]

2. 조선대의 선시

주지하듯이 조선이 개국하면서 불교혁파가 추진되어 불교계는 일대 전환을 맞는다. 조선 초기 대표적 선승인 함허기화涵虛己和(1376~1433)는 척불론에 대응하여 『유석질의론儒釋質疑論』을 지어 이론적으로 불교를 옹호한 바 있다.

또 이른바 심유적불心儒跡佛로 평가받는 설잠 김시습雪岑 金時習(1435~1493)은 문학의 사회적 효용성으로서의 풍교風敎를 중시하고, 감동을 주는 작품이라면 내용이 허망해도 상관없다는 개인의 성정순화性情純化를 문학의 효용으로 보았다.[26]

---

15) 知訥, 「圓頓成佛論」(『韓佛全』 4, p.728中) "所以達磨 欲令知月不在指 法是我心 故不立文字 以心傳心耳 是以禪門 只貴破執現宗 不貴繁辭義理施設"

16) 인권환(1983), 앞의 책 p.52

17) 신라승려로서 당에 거주하던 무상無常의 〈오경전五更轉〉, 고려전기 탄연坦然의 〈삼각산문수사三角山文殊寺〉, 이규보李奎報와 절친한 시우詩友였으며 『보한집補閑集』에 연구聯句가 실려 있기도 한 혜문慧文의 〈제보현사題普賢寺〉, 무기無記의 〈무주암無主庵〉 등이 그것이다.

18) 慧諶, 〈國師圓寂日〉, 『曹溪眞覺國師語錄』(『韓佛全』 4, p.5)

19) 『동문선』에는 충지의 詩 21편, 文 56편이 실려 있다.

20) 沖止, 〈嶺南艱苦狀〉, 「海東曹溪第六世圓鑑國師頌」(『韓佛全』 6, p.379上~中)

21) 김성규(1985), 「원감국사의 시의 일 연구」, 성균관대석사학위 논문. pp.60~63

22) 최귀묵(1994), 「沖止詩에 나타난 민족의식에 대한 비교 문학적 연구」, 서울대석사학위 논문. 참조

23) 景閑, 〈禪敎通論〉, 『白雲和尙語錄』 卷上 (『韓佛全』 6, p.654下) "敎是佛語 禪是佛意 然諸佛心口 必不相違"

24) 장편시로는 〈백납가〉·〈고루가〉·〈영주가〉 등을 지었고, 구전되다가 후에 한글로 거두어진 〈서왕가〉·〈심우가〉·〈낙도가〉 그리고 更讀式으로 표기되어 전하는 〈승원가〉 등을 남겼다. 이미 국문학계에서는 최초의 가사 작사가로 알려져 있다.

25) 인권환(1983), 『고려시대 불교시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pp.87~88

26) 서규태(1992), 「朝鮮前期 禪家文學의 硏究-雪岑, 普雨, 休靜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05

침체일로를 걷던 조선의 불교는 허응보우虛應普雨(1515~1565)가 출현하여 일시적으로 교단이 정비된다. 그는 〈일정론一正論〉을 저술하여 유불일치儒佛一致와 선교일치禪敎一致를 주장하고 화엄華嚴을 선사상으로 원융圓融시키고자 하는 원관圓觀사상을 펼친다. 보우는 선심禪心을 우위에, 시사詩思를 그 아래에 두고는 있으나 문학을 인정하고 창작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華嚴本妙體 화엄의 본래 지닌 묘한 바탕
頭頭不隱藏 물건마다 감추지 않네.
南山松蓋碧 남산의 처진 소나무 푸르고
北岳雪冠凉 북산의 쌓인 눈 서늘하도다.
波上青鳧短 물결 위 푸른 오리 짧고
雲邊白鶴長 구름 가 흰 학 길도다.
更尋眞實相 이 밖에 다시 진실한 모습 찾는다면
應失法中王 아마도 법왕을 잃게 되리라.[27]

위의 화엄사상을 드러내고 있는 시와 같이 보우의 선시는 진속불이眞俗不二와 유불일치儒佛一致, 염정불이染淨不二의 원관圓觀에 의하여 전개되고 있다.[28]

16세기말에 일어난 임진왜란은 불교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청허휴정淸虛休靜(1520~1604)과 부휴선수浮休善修(1543~1615) 등의 선사가 출현하여 조선의 선맥禪脈과 문학을 잇는다. 청허淸虛는 보우普雨가 부활시킨 승과僧科에서 선발된 인물로 이후 불교계가 그의 사상과 문하에 의해 편제될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는 풍교에 보다 충실한 모습의 효용론을 지향하고 있다.

마음에서 얻은 사람은 다만 거리의 잡담이라도 법의 요체를 잘 설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새소리까지도 깊이 실상을 말하는 것이 된다.[29]

청허는 시의 본질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고 "모든 병은 육단심肉團心에 있나니 어찌 수고로이 글자를 많이 모을 건가. 오언절구의 시는 평생의 뜻을 쓸 수 있나니"[30]라고 하여 오언절구五言絶句를 가장 즐겨 썼는데 이는 기교나 수사에 힘쓰지 않고 자신의 시정詩情을 진솔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작시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이밖에 임란기에 승군을 지휘하면서 전장에 뛰어들어 겪은 체험과 우국의 정신을 표출한 것이 시의 한 특징을 이룬다.

청허 이후 17세기는 청허의 제자들에 의해 선맥禪脈과 선시가 꽃을 피었는데 정관일선靜觀一禪(1533~1608) · 사명유정四溟惟政(1544~1610) · 소요태능逍遙太能(1562~1649) · 편양언기鞭羊彦機(1581~1644) 등이 그들이다.[31]

정관일선은 평생을 청정구도의 수행생활로 일관한 인물이다. 당시 종군從軍한 승려들은 급속한 세속화 경향이 일어나고 있었다. 정관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수행을 통한 교단의 자정과 기도祈禱와 제회齊會를 통하여 중생구제衆生救濟와 불국토를 지향하였다.

사명유정은 18세 되던 해 1561년 선과禪科에 급제하여 이후 15년간이나 서울에 머물며 사대부들과 교유관계를 맺었다. 청허의 교학을 계승한 승려답게 교학을 중심에 둔 유불조화儒佛調和를 도모하였다. 그의 시가 상징象徵이나 역설逆說이라는 수사修辭보다는 경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전하는 것도 교학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27) 普愚, 〈華嚴不思議妙體頌〉『虛應堂集』 卷下 (『韓佛全』 7, p.571上) "病在肉團心 何勞多集字 五言絕句詩 可寫平生志"
28) 이종찬(1977), 「허응당시의 고구」 『동악어문논집』 10, 동국대학교, 참조
29) 淸虛, 『禪家龜鑑』 (『韓佛全』 8 p.635下) "得之於心者 非但徒談善說法要 至於禽語 深談實相也"
30) 淸虛, 〈永懷〉, 「淸虛堂集」 (『韓佛全』 8, p.688)

임란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그의 시에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소요태능의 현실대응 양상은 종단과 불법수호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태능 시의 두드러진 점은 확고한 선학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시법시示法詩계열의 시가 상당 부분 차지한다는 것이다. 선시의 상징성과 언어의 상식을 초월한 표현이 그의 시의 특징이다.

편양언기는 휴정의 4대 제자 가운데 가장 하화중생下化衆生에 힘썼던 인물로 그의 유자와의 교유시交遊詩는 이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한다. 이러한 유자와의 교유시가 이때부터 현실대응 방편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이들은 전란 극복을 통한 불국토佛國土 건설을 지향하고 민중불교民衆佛敎를 본격적으로 주창하여 조선조 불교계의 중흥을 꾀하였다. 또 임란 극복의 다양한 양상을 시문에 담아 불교적 사유를 현실로 끌어내려 보다 대중적인 모습으로 변형시켰는데 이때 각종 수사기교의 동원과 내용과 형식의 간접적인 표현을 동원한 미언의 문학관을 전개시켰다.[32]

18세기 선시의 전반적인 전개는 문자의 본질적 가치인 도구로서의 효용론과 유자와의 교유를 위한 현실대응논리로서의 효용론이 지배적이었다. 이로 인해 유자들과의 수답시酬答詩 가운데는 찬미讚美의 내용이 많았다.

이 시기 선시의 표현상의 특징은 교학의 발달로 인한 언어도단으로 대표되는 선종어 사용이 현저히 줄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알게 하기 위한 시'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즉 일정 정도 서술적敍述的이고 설리적說理的인 시상을 전개시킨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학적敎學的이라고 부를 수 없는 '교학敎學의 선적禪的 체화體化'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이 시기 승려들은 내석외소內釋外騷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는 시정詩情을 인정하고 순수 시문을 창작하려는 의식변화를 보여준 것이다. 즉 자연을 읊은 시에서는 언어의 조탁이나 인위가 가해지지 않은 천기론적天機論的 성향이라 불릴 수 있는 시들이 창작되었으며 순수 기행시紀行詩가 다작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유행은 당시 유자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된 창작형태로 유불의 활발한 교유만큼이나 시문학적 경향도 서로의 영향관계에서 전개된 것이었다.

이러한 선시의 전개구도展開構圖에서 특히 천경해원天鏡海源(1691~1770), 묵암최눌默庵最訥(1717~1774), 연담유일蓮潭有一(1720~1799) 등은 선시일여론禪詩一如論과 효용론적效用論的 시문관詩文觀을 피력하였다.

Ⅳ. 맺음말

이상 간략히 살펴본 바 선시禪詩는 그 시대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게 발전하였다. 선시가 불법佛法을 드러내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 창작되었던 발생적 요소 외에 내용상으로 사회적, 불교적 상황을 담아내며 꾸준히 작시되고 계승, 발전하였음을 볼 수 있다.

문학사를 정립하고 그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작가를 연구하고 그 작품세계를 탐색해 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문학작품을 통해서 한 시대의 시문학적 성격과 의의를 구명하려면 많은 개별 작가들의 문학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선시禪詩 연구에 있어서의 과제이기도 하다.

31) 이들 외에 청매인오靑梅印悟(1548 1623), 중관해안中觀海眼(1567~?), 백곡처능白谷處能(?~1680), 월저도안月渚道安(1638~1709), 백암성총栢巖性聰(1631~1700), 무용수연無用秀演(1651~1719) 등이 불교계에서 활발한 역할을 하였으며 더불어 시문집을 남기고 있다.

32) 배규범(2001), 『임란기의 불가 문학연구』, 보고사. p.37

『대승기신론』의 훈습熏習에 대한 고찰 2

혜선 / 대교과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기신론』에 나타난 훈습
1. 『기신론』 개요와 훈습의 의미
2. 경론에 보이는 훈습
1) 초기불교와 유식에서의 훈습
2) 능가경』에 나타난 훈습의 단편
3) 『능엄경』과 『법화경』에서의 훈습
4) 선어록에서의 훈습
3. 『기신론』의 사종훈습四種熏習
1) 육염심六染心 및 훈습작용
2) 염법훈습染法熏習
3) 정법훈습淨法熏習
4. 훈습을 통한 자성청정심 회복

Ⅲ. 맺는말

4) 선어록에서의 훈습

그 외 선어록에서 본성과 훈습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면 『대지도론』 제67권에 '습관적인 행동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본성이 된다(적습성성積習成性)'고 했고, 『논어』 「양화陽貨」편에 공자도 '사람의 본성은 같지만, 습관은 다르다(性相近也, 習相遠也)'고 했다. 또한 『임제어록』에서는 몸으로 갈고 닦아 연마하는 일(체구연마體究鍊磨)이라고 했는데 비슷한 표현으로 『논어』에는 절차탁마切磋琢磨가 있다. 이는 사람이 좋은 습관을 익히고 지혜와 인격, 교양과 품격을 갖추도록 교육받고 본성을 발현시키기 위한 꾸준한 실천수행 해야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굉지어록』에 '물과 바람은 독자적인 색깔과 향기가 없지만, 대나무 숲을 지나면서 푸른 색깔을 띠고 흐르며, 바람도 꽃밭을 지나면서 꽃향기를 품고 불어온다(水向竹邊流出綠, 風從花裏過來香).' 라고 하여 마음에 '훈습' 되는 좋은 인연과 환경을 표현하고 있다.

3. 『기신론』의 사종훈습四種熏習

1) 육염심六染心 및 훈습작용

『기신론』에서는 무명이 일으키는 마음의 오염된 모습을 육염심六染心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그 의식의 세추細麤에 따라 구분하여 수행을 통해 번뇌를 차츰 끊을 수 있는 각각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경계로 나누어 분별하는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상응염相應染이라 하고 이는 다시 ①집상응염執相應染(의식 - 모든 형상에 집착하는 집취상과 계명자상의 번뇌), ②부단상응염不斷相應染(상속식 - 인지하고 분별하여 생각이 단절됨 없이 상속하는 번뇌). ③분별지상응염分別智相應染(지식 - 본능적인 호오好惡의 판단, 분별하는 번뇌) 으로 나눌 수 있다.

반면 중생심의 주관적인 마음(智相)과 마음(의

식)의 대상 경계에 반연되어 나타난 모습(緣相)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를 불상응염不相應染이라 하는데 이는 다시 ④현색불상응염現色不相應染(현식 - 모든 이해를 초월한 것에 대해 집착하는 번뇌), ⑤능견심불상응염能見心不相應染(전식 - 자의식, 자아에 대해 집착하는 번뇌), ⑥근본업불상응염根本業不相應染(무명업식 - 미혹한 마음의 근원이며 가장 미세한 번뇌) 으로 삼세三細에 해당하는 심층의 미세한 생멸심의 염오 단계이다.

이와 같은 생멸인연生滅因緣의 구조에서 중생의 마음 속에 본성이 깨끗한 여래장으로 내재되어 있지만, 그것이 무명에 의해 물들기도 하고 반대로 무명에 작용을 끼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무명과 여래장의 영향 관계를 염법染法과 정법淨法의 상호 훈습으로, 곧 '염정호훈染淨互熏' 이라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유식의 훈습개념과 다른 『기신론』의 독특한 훈습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분별하는 중생심의 거친 번뇌 망념에서 주객이 상응하지 않는 미세한 번뇌 망념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망심을 벗어날 수 있도록 수행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보살도의 수행단계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중생의 생멸심을 벗어날 수 있는 수행방법과 깨달음의 단계를 보여 궁극적으로 오염된 망심을 진여가 훈습시켜 부처의 경지에 이르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기신론』 훈습은 크게 정법훈습淨法熏習과 염법훈습染法熏習으로 나눌 수 있다. 정법훈습은 중생이 무명의 세계로부터 허망분별상을 지워나가 청정한 바탕을 회복해 진여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훈습으로, 어떤 중생에게 정법훈습이 가해지게 되면, 그는 번뇌로부터 벗어나 열반涅槃이라는 근원적 상태로 돌아가게(還原)되므로, 이러한 훈습은 '환멸還滅' 문의 연기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염법훈습은 마음의 본바탕인 진여로부터 염오의 허망분별상을 그려내어 무명과 망심, 망경계가 번갈아가면서 중생의 마음을 훈습하여 끊임없이 업業을 지어 미혹의 현상 세계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으로, 이것은 '유전流轉' 문의 연기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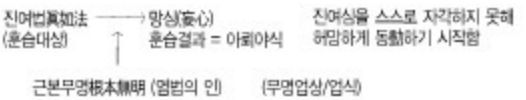
본 소고에서는 염법훈습의 3가지 종류인 무명, 망심, 망경계 훈습를 통해 진여가 오염되어 가는 과정을 알아보고 정법훈습의 2가지 종류인 진여, 망심훈습과 그 하위 구분 즉 진여의 내적인 자체상 훈습 작용과 외적인 용훈습작용 그리고 수행 의식 단계에 따라 구분된 분별사식, 의훈습을 통해 자성 청정심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알아보겠다.

〈표 2〉 훈습의 종류

2)염법훈습染法熏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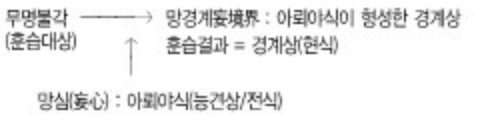
염법훈습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① 무명훈습無明熏習 : 근본 무명이 진여를 오염으로 물들여 망심으로 전환시킨다. 무명이 진여를 훈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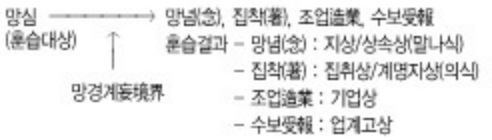


10) 「淨土論註」, 「종용록」 제56칙 등에 자주 인용된다.

② 망심훈습妄心熏習 : 아뢰야식의 무명 내지 불각이 염念을 일으켜 허망한 대상세계인 망경계를 형성한다. 망심이 무명을 훈습.



③망경계훈습妄境界熏習 : 망경계가 망심을 훈습하여 망령되이 생각하고 집착하여 갖가지 업을 지어 일체 심신의 고통을 받게 되는 작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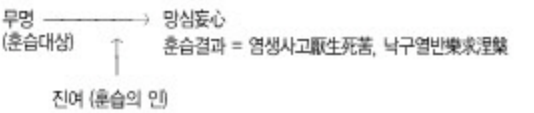
염법훈습은 사실상 『기신론』 생멸문의 '불각不覺', 곧 근본무명에 의한 유전流轉에 대한 설명이며, 아뢰야식으로부터 오의五意[11]와 의식意識이 전변함을 설명한 '생멸인연生滅因緣'을 '무명의 훈습'이라는 개념을 통해 단계별로 그룹화해서 부연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정법훈습淨法熏習

『기신론』에서는 정법훈습이 있기 때문에 중생은 스스로 자기 본성을 믿어서 제 마음 밖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수행을 닦아 오랫동안 훈습한 힘으로 무명을 없앨 수 있으며, 무명이 멸할 경우 심상心相이 사라져 열반과 부처의 자연업自然業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정법훈습은 중생들에게 염오된 마음이 어떻게 청정한 바탕을 회복하는지를 『기신론』만의 독특한 훈습개념으로 전개하여 설명한다.

정법훈습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①진여훈습眞如熏習 : 무명에 가려 의식에 드러나진 않지만 존재하는 진여법신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진여 자체에 불러들이는 작용이다. 무명에 진여가 훈습되어 중생이 발심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진여훈습은 중생에게 내재된 여래장이라는 내적인 인因과 함께 외적인 환경(外緣)으로서의 부처, 보살, 선지식善知識을 포함함으로 전자는 자체상훈습自體相熏習, 후자를 용훈습用熏習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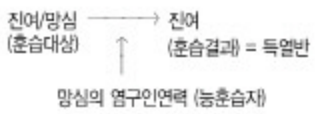
㉠자체상훈습自體相熏習 : 모든 중생의 진여 내부에 훈습의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여 반성하는 계기를 일으킬 수 있으며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평안을 구하게 하는 것이다. 자기의 몸에 진여의 법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비로소 발심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자신 안에 진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수행의 출발점이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자체상훈습인 진여의 내훈 작용이다.

㉡용훈습用熏習 : 진여의 용대用大에서 보신報身, 화신化身이 나타나서 그것이 외연外緣이 되

11) 오의五意 : ①업식 – 무명업상을 만듦. 아뢰야식 ②전식 – 업식으로부터 전환. ③현식 – 일체경계를 나타내는 식 ④지식 – 아는 식. 염정을 분별하는 식. 제7 말나식 ⑤상속식 – 생각(念)이 끊임없이 일어나 단절없이 이어짐.

어 중생을 교화敎化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신론』에서는 나무가 불에 탈 수 있는 것은 나무 안에 불에 탈 만한 성질이 있어 그것이 내적 원인이 되는 것이다. 만일 사람이 그 나무에 불을 켜는 외적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나무는 불에 탈 수 없는 것과 같이 중생도 완전한 깨달음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본래 자기 안에 있던 진여의 본성인 정인正因 외에도 불보살 등에 의한 외적 계기가 주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외적 계기를 용훈습用熏習이라고 한다.

②망심훈습妄心熏習 : 진여 훈습에 의해 생긴 '고통을 싫어하고 즐거이 열반을 구하는 인연의 힘 (염구인연력厭求因緣力)' 으로 다시 처음의 진여를 훈습하여 그 힘을 증장增長시켜 발심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염구厭求의 마음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행의 단계에 들어가게 하는 작용이다.



다시 망심훈습은 중생이 어떤 관점에서 열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분별사식훈습分別事識熏習과 ㉡의훈습意熏習(業識熏習)의 둘로 나눈다. 분별사식훈습은 제6식 차원의 수행으로 범부와 이승二乘이 마음 밖에 경계가 실재한다고 집착하는 까닭에 생사와 열반을 다른 것으로 보고 열반을 대상화하여 점차적으로 수행해 간다. 반면 의훈습은 십주十住 이상의 보살들이 모든 대상이 오직 마음으로 인한 줄 알기 때문에 열반을 대상화하지 않고 말나식, 아뢰야식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으로 보아 정법훈습의 진여훈습은 미혹한 망심이 염구의 마음이 생기도록 돕는 작용인 것에 반해 여기에서의 망심훈습은 염법훈습의 망심과는 달리 세간의 고통을 싫어하여 열반을 구하는 마음이 간절해져서 구체적으로 수행 단계에 나아가게 하는 마음작용이다.

4. 훈습을 통한 자성청정심 회복

위에서 『기신론』의 사종훈습에 대해 알아보았다. 크게 염법훈습에서는 중생의 근본 고통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여주고 정법훈습에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인 무명이 제거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시작을 알 수 없는 무명이지만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지멸止滅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진여의 자성청정심이 내재되어 있음을 믿고 진리를 구하고자 발심하면, 우리의 내적 요인인 여래 법신과 외적 요인인 제불보살의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발원력에 힘입어 자성청정심을 회복해 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우리가 스스로 자성청정심 회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사유해 보자.

첫째 중생의 마음은 늘 진여와 무명 사이에 있다. 훈습은 중생의 마음이 진여와 무명 사이를 왕래하는 흐름을 설명하는데 중생의 마음이 진여와 무명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 업과를 받는 윤회의 세계로 점점 흘러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진여가 발현되어 자성청정심을 회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진여와 무명이 서로 범접할 수 없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마음이 향하는 방향에 따라 어떻게 습관을 들여가는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순간순간 변하는 내 마음이 진여, 열반을 향하고 있는지 망심으로 다른 망경계를 생성하고 조업造業, 수보受報를 거쳐 윤회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깨어 있음이 필요하다.

두번째로 이러한 진여의 작용(용훈습)이 끊어지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그것은 부처가 무한한 중생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동체대비' 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기신론』에서는 이러한 동체대비가 중생과 여래가 진여의 입장에서 평등하다고 설하는데, 이것은 모든 중생이 스스로 여래장인 줄 믿고 자비의 실천으로 여래의 행을 보여준다. 중생이 여래의

자비를 입고 지혜를 닦아 부처가 되었을 때 그러한 중생 또한 세간에 자비를 실현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이것은 『기신론』의 수행신심분修行信心分에 나오는 사신四信과 오행五行과 연결되는데 실천수행 가운데 지관문止觀門에서 모든 중생이 무명의 훈습을 받아 고통받고 있는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관觀하고 자비를 실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정리하면 순간순간 내 마음의 방향을 지켜보고 과연 이 순간의 마음이 부처로 향할 것인지 미혹에 머물 것인지 방향을 재설정하는 습관을 들여 스스로 경계에서 벗어나 고요함에 들어가 무명과 진여, 중생과 부처가 결국 하나임을 깊이 자각하고 바라밀을 실천수행을 하면 진여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III. 맺는말

우리는 나날이 마음을 쓰고 살면서도 마음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순간순간 생멸하는 마음(生滅心)에 미혹하고, 만유의 본체로서의 마음(眞如心)은 가려져 있다. 앞의 마음과 뒤의 마음이 일심一心의 양면으로서 둘이면서 둘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인 것도 아닌 이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이 마음에 갖추어진 한량없는 공덕과 불가사의한 덕성을 깨닫지 못하고, 번뇌가 마음인 줄 알아 그 속에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중생살이' 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기신론』의 가르침을 통해 이 마음(一心), 진여에 대한 믿음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진여는 여여부동如如不動하고 현상세계의 모든 존재가 그대로 진여 법신의 현현이며 여래의 나툼이고 염구심厭求心으로 출가 발심한 것도 진여의 작용인 것이다. 현재 마주하는 모든 경계들은 진여를 향한 실천수행의 한 방편인 줄 객관적으로 조견照見해 볼 수 있는 안목도 생겼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현재에 수순隨順 하며 앞서 가신 대승 보살들의 발자취를 따라 바라밀을 실천 수행하며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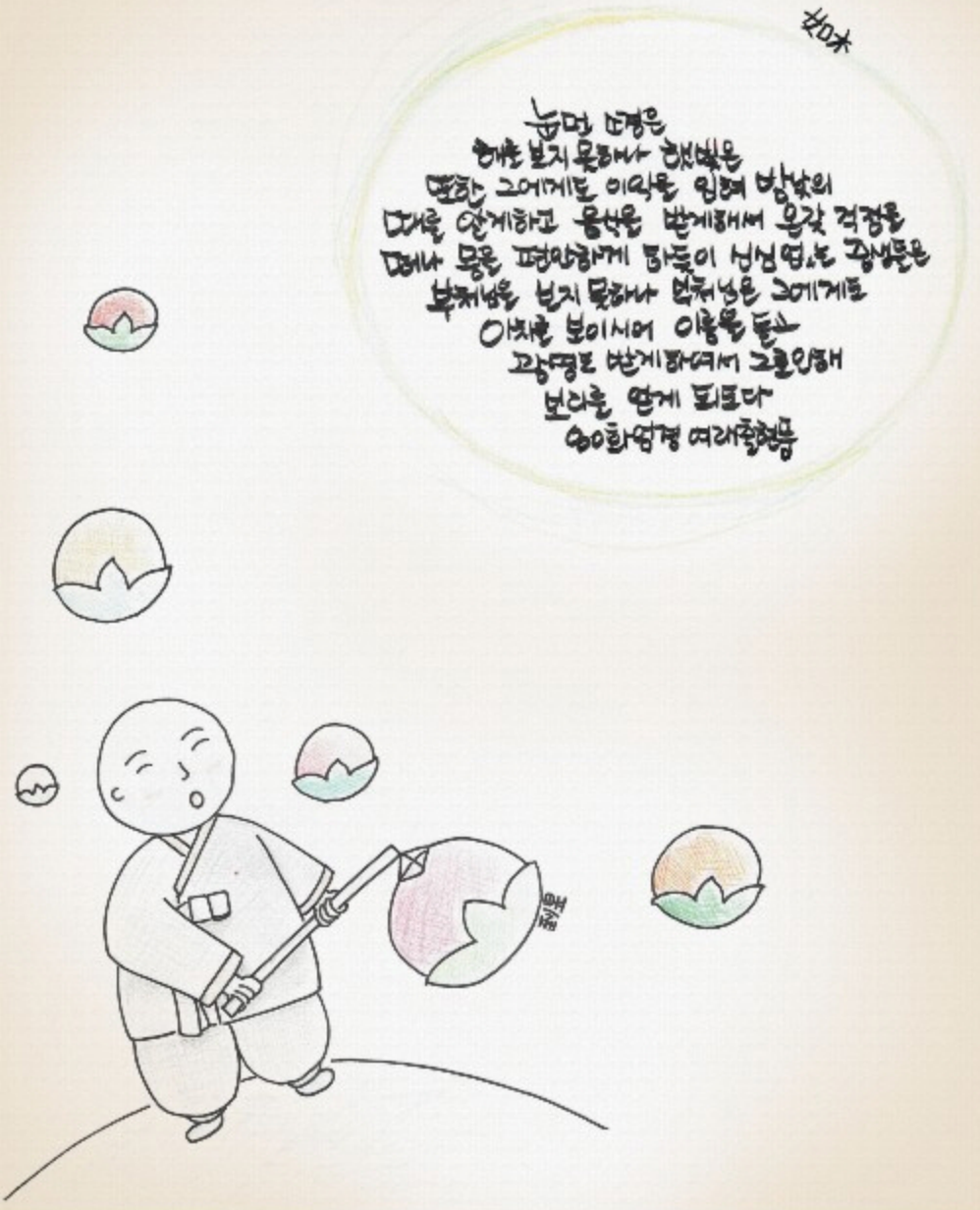
끝으로 읽어주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원융한 이 도리에 지극히 귀의합니다.

〈참고문헌〉

- 한자경, 『대승기신론 강해』 「유식무경, 유식 불교에서의 인식과 존재」
- 이평래, 『대승기신론 강설』
- 은정희, 『원효의 대승기신론 소, 별기』
- 지운, 『기신론 사상의 연원(淵源)에 대한 고찰』
- 이홍우, 『대승기신론 통석』
- 고승학, 『대승기신론 에서의 '여래장' 개념 연구』
- 감산, 『감산의 기신론풀이』

부처님 마음과 같이

여목, 도욱 / 사집과



가장 좋은 경, 간경看經

– 범어사 승가대학 학장 용학龍學 스님 탐방기 –

도명 / 대교과

사교반에서 화엄반으로, 금당에서 설현당으로 옮겨가는 겨울철 끝에, 다섯 명의 학인 스님들이 범어사 아래 문수선원으로 용학 스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아파트로 둘러싸인 상가 5층에 자리 잡은 선원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담장 없는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부처님께 헌정된 무비 스님의 화엄경 80권과 누구나 가져가 읽기를 권하는 법공양 책들로 장엄한 법당에 들어서니, 화엄경 산림법회의 열기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저희들이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문수선원에 왔다고 하시며 환하게 맞아 주셨습니다.

근황을 여쭙자 스님께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되물으시며 우리들 자신에게 주의를 돌려놓으셨습니다. 소임으로 바빴다는 스님에게 소임을 맡아도 사람이 바쁜 것이 아니라 일이 바쁘다고 하시며 그 사람을 알고 있느냐고 일침을 놓으십니다.

"이 꽃은 왜 분홍색입니까?……

줄기가 분홍입니다. 매화꽃은 가지 속까지 자줏빛입니다. 나뭇가지만 보면 알아요."

"그럼 사람 속은……?"

"시~커멓다. 무명이니까 시커멓지요. 중생을 위로한다고 부처라 하는 것입니다. 중생이 부처라고 하는 한 생각을 끊어야 해요. 부처님은 허공과 같고, 부처님이 된다는 것은 희망사항이지 되지는 않아요.

열반경에도 중생은 중생, 중생을 부처로 보면 안 된다고 나와요. 나를 해치고 죽이려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랑하고, 몸에 병고가 있더라도 양약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수행력이 부족해 견딜 수 없잖아요.

병이 다 사라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바가 극락세계. 시성정각始成正覺해서 본심을 되찾았을 때 광명이다 부처다 하고, 그 사람 행동은 모두 진리예요. 사람은 시커멓지만 또 유유업수신唯有業隨身, 중처편추重處偏墜. 오직 무거운 쪽으로 업 따라 치우치니, 무명업상이 끊어져야 하지요."

스님께서는 어느 새 우리의 현재 모습에서 과거의 업을 보시고 유쾌하게 인과를 자각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웃음, 웃음, 또 웃음. 하시는 말씀마다 꼬리를 이은 웃음으로 문수선원에 웃음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스님을 뵌 지 몇 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우리들의 법명을 다 외워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경전은? 간경看經이에요. 看에 손 수手자를 쓰잖아요. 손으로 짚어서 눈으로 보는 것. 독경하고 달라요. 손으로 짚는다는 것은 낱낱이 바늘로 찌르듯이 눈으로 찔러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명심한다는 뜻이에요. 내 제자들은 경전을 다 외워요. 외워야 배웠다 할 수 있어요.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맛있는 것 있으면 먹듯, 아프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 흔들리고 번뇌가 들면 부처님 경전에 의지하는 거예요. 경은 기준점이에요. 그 때 그 때 인연에 따른 형형색색 실이 가로지를 때 기준을 잡아주는 날줄, 꿰뚫는다는 뜻이에요."

경을 잘 보려면 많이 읽고 외워야 하고, 반복을 싫어하지 않아야 신심 있는 것이라 하시며 몸이 불편해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부하시는 어른스님의 정진에 대해 들려주셨습니다.

"바닷가 절벽 위의 소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바람 불고 흙이라고는 없고, 몇 년을 가도 굵어지지 못하지만, 그 나무는 가물어도 색이 변하지 않아요. 좋은 환경에 있는 나무는 가물면 타잖아요. 그런데 이 소나무는 색이 변하지 않고 보일러도 없이 잘 버팁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장렬하게. 얼마나 춥겠습니까? 스님들 아니면 누가 이 말법시대에 법을 지탱하겠습니까? 일한다고 글 못 본다? 과도친다고 오늘 소나무가 쉬어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죽지요. 바위틈에 흙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틈 속에 뿌리를 박고 사는 겁니다."

일상에서 당장 하는 일에 휘말려가는 경험이 많았다는 학인스님에게 스님께서는 소임을 사는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양주와 삼년기도를 자처하고, 쉬는 날 없이, 방에 이불도 없이 의자가 다 해어질 때까지 공부하셨던 스님은 그렇게 일하며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을 이만 번도 더 읽으셨습니다.

"일하니까 외워야지요. 일하면서 외워야지, 일하면서 일만 합니까? 배추를 키워도, 옷을 입어도, 차를 마셔도 공부가 되고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재미있어요? 불 한 방울이 곡식을 익히듯, 내 자그마한 정성이 어떻게든 전달되어 한두 사람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컵에도 고래가 사는 법입니다. 믿음이라 하는 것은 공덕의 행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뭐 하나를 하더라도 자비롭게, 신심 내서."

신심은 그 성질이 자리이타인데, 신심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능엄경에서는 삼점차*를 닦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벗을 멀리하고 어질고 선한 이를 가까이해야 하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일 좋은 벗은 看經입니다. 지혜의 자량이 되는 원천적인 힘은 글을 읽고 외우고 사유하는 데서 나옵니다. 무예를 닦는 사람이 천 번 담금질하고 만 번 연마하는 체력을 바탕으로 기술을 익히는 것과 같이, 공부하는 이들에게 단련이란 '글을 있는 대로, 무조건 다 외우는 것' 입니다. '나를 단련시켜서 한 구절 한 구절 파고들어가 내 수행하고 결부' 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看經입니다.

스님께서는 전통적인 경전 암송을 강조하시면서도, 공부를 돕는 매체는 현대인의 근기와 좋아하는 바에 따르셨습니다. 스님의 독경 소리에 맞추어 책장이 넘어가고 형광펜으로 색칠되는 영상을 보며 학인스님들이 경을 외웁니다.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없는 분들이 동영상으로 공부합니다. 스님의 휴대폰은 화엄경 80권을 비롯해 법문과 강의 자료들로 가

* ① 제기조인除其助因 : 옆에서 탐심, 음심, 화를 일으키도록 돕는 원인을 제거하라, 오신채를 먹지 말라.
② 고기정성制其正性 : 그 안에, 속에서 탐욕과 화가 응어리져 있는 것을 뽑아내어라.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뽑아내어라.
③ 위기현업違其現業 : 지금 훔치고 싶고, 욕하고 싶고, 성질내고, 탐심이 일어나고, 음심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더라도 거기에서 외면해버려라.

득한 경전 나눔의 도구였습니다. 경전을 보고, 말하고, 휴대폰 속, 머릿속, 뼛속까지 경전으로 가득할 때, 그렇게 경전화, 부처화 되어갑니다.

기신론을 공부하면서 수순隨順이라는 말씀이 깊게 와 닿아,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수순이라는 것은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부처님이라야 할 수 있습니다. 남이 눈 빼달라면 눈 빼주고, 콩팥 빼주라면 콩팥 빼주고, 돈이 필요하면 화엄경 입법계품 대광왕처럼 창고를 열어놓고 다 가져가라 하는 것이지요.

된장이 익어가는 것, 경이롭습니다. 콩이 햇볕에 익어, 타작하고, 삶아서, 메주를 만들고 된장을 담아, 뚝배기에 끓여 나오잖아요. 콩 하나가 이 몸에 와서 소화되기까지 콩이란 흔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수순이라 하면 몸속, 뼛속, 머릿속까지 스며들어 콩의 흔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여법성에 수순한다는 것은, 법의 성품이 본래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이무소득고以無所得故 부주색보시不住色布施, 부주성향미촉법보시不住聲香味觸法布施이고, 수순을 다른 말로 하면 바라밀이 됩니다."

스님께서 화엄경 약찬게 수지독송의 이로움에 대해 말씀해 주시며 화엄경 과목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최근 범어사를 떠나고 보니 어디나 고향 같다는 스님께서는, 이세간품이야말로 수순이라 하셨습니다. 화엄종장들은 혼자 열반을 원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다 떠났더라도 사바세계로 돌아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화엄사상과 보살행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떠나(이세간離世間) 법계에 들어감(입법계入法界)도 법계와 세간이 다르지 않으므로 세간에 다시 들어감(입세간入世間)이 됩니다. 우리가 악세로 들어가 보살행을 할 때 악세에 물들지 않는 힘을 기르는 법 역시 看經이라 하시며, 아무리 바쁘고 조건이 좋지 않아도 계속 공부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스님들 보면 신이 나."

하시며 네 시간 동안 다이아몬드를 쏟아주시는 법문을 듣고, 밝아질 게 없다고 그만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밝아졌고, 화엄경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라톤을 한 번도 완주해보지 않고 양말은 신발은 무엇을 신어야 좋겠는지 질문하는 우리들에게, 무조건 뛰고 뛰고 또 뛰라 하시던 진심 어린 경책의 말씀이 오래도록 여운이 남습니다.

아직, '화엄경이 나' , '여래가 바로 나' 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선지식을 찾아뵈며,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선지식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봄을 찾아 돌아다니다 집 앞마당 매화에서 봄을 발견한 것처럼, 오늘의 보석 같은 법문이 늘 제 곁에 있는 도반스님들과 교수스님들과 은사스님께 이미 배우고 들었던 것임을 기쁘게 깨닫습니다.

바르게 깨달으신 부처님과
보리심을 발한 모든 선지식들께 예경 올리며,
우리들이 모두를 이롭게 하려는 신심을 일으켜 바라밀을 행할 때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에 의지해 힘을 얻고 물러남 없이 나아가기를 발원합니다.

편집자주

'운문만행萬行'란은 각처에서 활동하는 운문인을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이곳 운문사에서의 공부를 자량으로 삼아 훌륭하게 활동하고 계신 선배님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귀감으로 삼고자 합니다.

숨과 마음을 보며 쉬어가는 곳
사마타 · 위빠사나 수행처 '붓다선원' 1

혜정 / 제54회 졸업

엊그제 운문승가대학을 졸업했는데 이렇게 운문지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살고 있는 수행도량, 붓다선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읽는 분들이 쉽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가상의 방문자Q가 등장하는 시나리오 형식을 취했습니다.

#1. (붓다선원 초입. '사마타 · 위빠사나 수행처 붓다선원'이라고 새겨진 큰 돌 뒤에 '수행자여, 선정을 닦아라. 삼매가 있는 수행자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새겨져 있다.)

행자 : 잘 오셨습니다. 걸어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Q : 좋았어요. 와! 앞에 보이는 산이 정말 멋지네요. 마치 히말라야에 온 것 같습니다.

행자 : 해발 1200m고지, 수도산修道山이에요. 여기가 720m고지니까 편안히 바라다 보이지요.

Q : 해발 700m-800m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하던데 딱 적당한 고지네요. 또 저렇게 광대한 산맥이 편안히 바라다 보이니 탐 · 진 · 치가 절로 없어질 것 같아요.

행자 : 네, 오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2. (법인당. '무상 · 고 · 무아' 삼법인을 의미한다.)

진경스님 :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Q : 수행을 진지하고 열심히 하는 스님들이나 재가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스님을 직접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스님께서도 운문사를 졸업하셨지요?

진경스님: 네, 27회 졸업생이에요.

Q : 동국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셨다고 들었어요. 지금까지 하신 수행에 대해 듣고 싶어요.

진경스님 : 동국대 졸업 후, 3년간 간화선을 실참했습니다. 그러다 붓다께서는 어떻게 8정도를 실천하셨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미얀마에 가서 10년간 사마타 · 위빠사나 수행을 한 뒤 한국에 돌아와 봉인사 선원장으로 있으면서 선정과 지혜 수행을 나누었고 2013년 10월, '붓다께서 하신 수행을 하는 집' 이라는 뜻의 붓다선원을 개원했습니다.

Q : 사마타 · 위빠사나 수행이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진경스님 : 사마타는 마음을 고요하고 명료히 하는 선정(止)수행이구요. 위빠사나는 몸과 마음의 특성을 무상 · 고 · 무아로 통찰하는 지혜(觀)수행입니다. 니까야의 여러 곳에서 우리의 스승 붓다께서는 선정의 기반 위에서 몸 · 마음과 그것의 조건과 원인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시고 '나는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떠한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붓다께서 보이신 8정도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사마타 · 위빠사나 수행입니다.

Q : 붓다선원에서 하는 선정수행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진경스님 : 붓다께서는 40가지 선정수행을 보이셨어요. 그 중 붓다선원에서 하는 아나빠나사띠(들숨날숨에 마음챙김)수행은 색계4선정까지 도달할 수 있는 주제예요. 우리의 붓다와 역대 모든 붓다들께서 이 수행을 통해 선정을 이루셨죠. 인중 부위를 지나는 숨의 흐름이나 움직임에 마음챙김하면 차츰 집중력이 좋아질수록 숨의 빛나는 색깔과 집중된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들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깔라빠(물질의 최소단위)들의 색깔이 서로가 서로를 거울처럼 비추어 빛나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니밋따(표상)라고 하는데 선정의 대상이 됩니다. 육안으로는 이 빛을 볼 수 없지만 지혜의 눈으로 이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니밋따가 계발되면 선정의 5요소가 일어나게 되고 5장애는 차츰 사라지게 되어 선정에 드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후 계발된 선정력으로 몸과 마음의 특성을 통찰하는 지혜 수행을 합니다. 마치 최첨단의 의료기기들이 고도의 빛을 사용하여 인체를 꿰뚫어 보는 것처럼 지혜의 빛으로 5온의 성질을 관통해보아 5온에 대한 잘못된 견해와 취착들을 버리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Q : 붓다선원의 수행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요?

진경스님 : 먼저 들숨날숨에 마음챙김하여 선정을 계발한 뒤 위빠사나수행을 합니다. 경행과 좌선을 번갈아하며 걷고 움직이고 밥 먹는 행주좌와의 모든 일상에서 숨에 마음챙김하여 선정을 계발하게 합니다. 그런 후 몸과 마음, 즉 5온의 무상, 고, 무아를 통찰하는 지혜수행을 합니다. 집중수행 기간에는 격일로 면담을 통하여 바른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수행 점검을 받고 법문을 들어 목적지를 향한 신심을 북돋웁니다. 마지막 날에는 자애명상을 합니다. 상시수행 중에도 정기적으로 면담과 법문이 있습니다.

Q : 사마타 · 위빠사나 수행법과 간화선의 다른 점은 무엇이고 이 두 가지 수행법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진경스님 : 두 수행법의 다른 점은 대상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은 대상을 따라 기우는 성질이 있기에 수행에 있어 대상이란 중요한 조건입니다. 숨에 마음챙김 할 때는 숨이 대상입니다. 숨은 실제적인 대상이죠. 몸에 딸린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의 일부로 정확히 알 수 있고, 숨을 알면 마음은 다른 것 하기를 멈추기 때문에 숨이라는 대상의 특징상 바로 고요해집니다. 사마타를 통해 어느 정도 선정력이 생기면 5온을 대상으로 5온의 특상을 통찰하는 위빠사나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사마타 · 위빠사나수행의 대상은 물질이든 정신이든 궁극적 실재를 잡고 나아갑니다. 열반에 이르는 길의 정확한 이정표가 제시되어 있어 자신의 역량에 따라 길을 걸을 수 있지요. 또한 자신이 어느 지점에 도달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바르게 걷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화선의 화두는 관념적입니다. '이뭣꼬' 든, '무無' 든 화두를 들면 뭔가 의심하는 마음이나 꽉 막힌 마음과 같은 의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상이 실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의단을 뛰어넘어 화두가 본래 가리키는 바의 목적지, 열반에 도달하는 데는 바위산을 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근기의 원인을 갖춘 사람만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요.

반면에 두 수행의 같은 점은 삼매를 일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 수행자들 중 오랫동안 간화를 하신 분들이 숨에 마음챙김하는 사마타수행에서 빠르게 선정에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간화선을 통해 삼매를 이미 계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빠사나의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화두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간화선의 정수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상이 다른 두 수행을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 선정수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마타수행 없이도 위빠사나수행이 가능합니까?

진경스님 : '선한 마음의 하나 됨' 이라는 선정의 정의가 보여주듯이 선정의 목적은 마음의 집중입니다. 즉 산란한 마음을 고요하고 깨끗이 함입니다. 이러한 선정력 없이 5온을 관통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신이 붓다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거나(짧은 게송을 듣는 것만으로 열반을 증득할 수 있는 사람, 주석서에서 붓다 입멸 후 천년 뒤가 되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없다고 했음.) 가까운 전생에 선정을 증득하지 않았다면 8정도인 계 · 정 · 혜의 순서로 나아갈 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3층 집을 짓고자 하는 이가 1층이나 2층을 짓지 않은 채 3층을 완성하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뽀쪽지붕경, S20:1)' 라고 하신 붓다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Q : 불교의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수행법들 가운데 선정수행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진경스님 : 붓다께서 연기를 통해 무아의 법을 보신 것은 선정에 기반했기 때문입니다. 붓다께서는 출가 후, 두 스승으로부터 무색계선정을 듣고 증득하십니다. 그러나 무색계천에 태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들을 떠납니다. 붓다의 목적은 삼계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이후 6년간의 고행 후, 어릴 적 잠부나무 아래에서 체험한 초선정을 기억합니다. '극도로 야윈 몸으로 희열과 행복이 있는 그런 선정을 얻기란 쉽지 않다. 선정의 행복은 감각적 욕망도 아니며 불선법도 아닌데, 내가 왜 선정의 행복을 두려워하는가? 이것이 혹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라는 견해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는 덩어리진 음식을 먹으리라' 라고 생각하시며 고행을 포기하십니다. 이렇게 붓다께서는 선정의 가치를 발견하셨고 깨달음을 향한 발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사마타 · 위빠사나 수행이 있게 한 근원입니다.

Q : 스님께서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진경스님 : '선정' 과 '무아' 입니다. 무거운 불선업 5가지는 5무간업으로 잘 알고 있지만 무거운 선업 2가지에 대해서 잘 말해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붓다께서는 선정을 증득하고 열반을 이루는 것이 죽음의 순간에 가장 먼저 그 결과를 일으키는 무거운 선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유사정법경(S16:13)' 에 보면 불, 법, 승, 계율, 선정의 5가지 법에 대한 신심이 약해지면서 정법이 사라질 것이라고 나옵니다. 오늘날에는 불법의 나라 미얀마에서도 선정수행은 필요 없고 순수위빠사나로 열반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수행처가 많습니다. 바르지 못한 법이 나타나 바른 법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지요. 선정은 열반의 가까운 원인이 됩니다. 선정력이 없으면 조건 따라 생멸하는 5온을 무상 · 고 · 무아의 연기로 통찰하기 어렵고 열반을 실현하는 수행자들의 맥이 끊기게 될 것입니다. 정법이 오래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상가는 붓다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자, 좀 걸으면서 더 이야기해 볼까요?

〈다음호에 계속〉

봄꽃처럼 밝고 환하게

치문반 방부소감

운문사 승가대학에 방부를 들인지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십분의 일도 시작되지 않았다고 상반스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정신 못 차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습의와 암송이 서서히 다가오고 이미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3-4일이 지나면서 운문사의 하늘과 마당에 핀 목련과 새벽 별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대중 속에 흐르는 공기가 얼마나 청아한지 서서히 보이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하나 모나지 않게 둥글고 원만하게 낙오자 없이 이끌어 주고 스스로를 둥글고 원만하고 수승한 스님으로 만드는 곳이 이 곳 운문사인 것 같습니다. 이 곳에서 함께 숨쉬고 공부할 수 있어서, 이 곳에서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 무득

일반인 통제 구역에 살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한옥에서도 살 수 있게 되었고, 한문은 잘 모르지만 매일 한문으로 된 부처님 말씀을 큰소리로 읽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조선시대 선비가 된 기분이 듭니다. 부족함 없이 공양물도 많이 들어와서 감사함으로 게으르지 않고 수행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긴장되고 낯선 마음이지만 앞으로 저 목련처럼 밝고 환하게 피기를 바랍니다. – 혜등

운문사의 생활에서 나는 어떠한 그릇이 되어 나올지 걱정과 기대가 반반입니다

한편 참 좋습니다. 그냥 좋은 이 느낌의 정체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현재는 그냥 좋은 느낌을 즐기면서 그냥 한걸음씩 만들어진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 형주

매일 비로전 부처님께 "주황색 옷 벗고 회색 옷 입고 운문사에서 살게 되기를, 도반이 생기면 무슨 일이든 함께 돕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덕분인지 무려 25명의 도반이 생겼고, 60명이 넘는 상반스님도 생겼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청풍료에서 살면서 모든 것이 새롭기에 서툴고 익숙하지 않지만, 배우는 기쁨이 커서 재미있기만 합니다. 보살의 마음으로, 자비심으로 습의해주는 상반스님들에게 감사하고 또 어렵기만한 습의와 힘든 과정을 잘 보내신 선배님들을 모두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마당에 흰 목련이 만발했습니다. 많이 부족한 치문반이지만 잘 배우고 익혀 다같이 만개했으면 합니다. – 범견

아만을 버리고 진정 대중 속에서 걸림 없는 자유를 얻는 방법을 배우는 치문반에 들어왔습니다.

더불어 저에게는 백여 명에 가까운 선배이자 도반이자 스승님이 생겼습니다.

"잘~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잘하는 것이 어색한 첫 철 치문반입니다.

"잘~ 못했지만 이제 배웠으니 잘 해보겠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엉뚱한 새내기 치문반을 위해 사리가 생길 정도로 인욕하시는 모든 상반스님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인욕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잘 지내서 다음해 이맘때 상반스님들을 기억하며 후배스님들께 잘 전달하겠습니다. – 진욱

부처님께서는 '도반이 우리의 수행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 에 대한 아난 존자님의 질문에 '도반은 우리 수행의 전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운문사에서 만난 도반들과 상반스님들, 어른스님들을 존중, 존경하며 서로가 배려하고 모두가 화합할 수 있기를 발원합니다. 늘 하심하며 행자 때의 마음가짐으로 악행을 멈추고 선을 실천하며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혜주

세 가지 소원

법운 / 사집과

그림 / 대교과 도행 5구

어릴 적, 한국의 전래동화 〈세 가지 소원〉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토록 좋은 기회를! 무엇이나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생겼는데 어리석게 허비하다니! 마치 내가 소원을 잃어버린 듯 한 아쉬움은 고통스럽기까지 했다. 연이어 읽은 여러 나라의 전래동화에서 같은 패턴의 이야기를 읽으며 충격은 더욱 커졌다. 프랑스 전래동화에서는 식당을 하는 사이좋은 가난한 부부에게 세 가지 소원을 이룰 기회가 생겼으나 서로 다투며 소시지를 얼굴에 붙였다 떼는 것으로 소원을 탕진하고, 그림형제의 이야기책에도 세 가지 소원을 이루는 착한 부부와 어리석은 부부가 있었다.

세 가지 소원을 받은 사람들 중 착한 이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지만 욕심 많고 어리석은 이는 더 어려운 처지로 떨어지는 것을 보며 '어떻게 이토록 어리석을 수 있을까! 나라면… 나라면!' 이라는 상상에 빠졌었다. 어쩌면 내게도 올지 모를 기회를 날리지 않도록, 이야기 속의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말을 하는 실수를 하지 않고, 마이다스 왕처럼 소원의 함정에 빠져서 불행해지지 않도록! 언제 올지 모를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기대와 걱정으로 거듭거듭 생각했다. 무엇일지 모를 최고의 선택, 후회하지 않을 것을 찾아서 오래 숙고한 끝에 나온 소원은 단 하나였다.

'신이 되겠다.'

세 가지 소원을 궁구하며 깨달은 것은, 세상에는 행복이 없다는 것이다. 동화 속의 착한 이들이 원하는 것은 일신의 건강과 굶주리지 않을 만큼의 양식과 편안한 집이었다. 그리고 악한 이들은 불로장생과 세상의 지배자, 혹은 소원을 고르려고 고민하다가 불행해졌다. 누구도 소원을 구해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에서 벗어나기를, 소원을 빌어야 하는 고통 그 자체를 없애고자 하지 않았다. 신이 되면 소원이 필요 없어진다. 아니, 소원이라는 개념조차 없어진다.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리고 그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 '고통을 끝내고 싶다. 신이 되겠다.' 는 대답 외에 무슨 말을 하겠는가? 바꾸어 말하자면, 고통을 느끼는 인간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인간이 아닌 존재, 신이 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세 가지 소원을 찾는 여정은 '왜 사는가?' ,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의 여정이었다.

세 가지 소원의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검소하게 살고 만족하며, 사랑하는 이들과 사이좋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역으로, 신에게 소원을 빌어야 이룰 수 있을 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증거이기도 했다. 욕심을 부려서 불행해진 이나 욕심 내지 않는 착한 이나 모두 행복하지 않았다. 이토록 누리기 어려운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필요한 만큼의 돈이란 얼마인가? 얼마나 노력해야 만족할까? 많은 돈이 행복을 보장할까? 필요한 만큼의 돈을 벌기 위해서도 온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만 좀처럼 갖출 수 없는데 얼마나 더 많이 노력해야 많은 돈을 가질까? 그런데, 죽음이라는 한정된 시간과 정성을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 권력은 어떤가. 아름다움? 명예? 젊음?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 병고와 이별과 변화하는 세상 앞에서 차례로 빛 바래어갔다. 이렇듯 나의 소원을 찾으며, 세 가지 소원 앞에서 왜 지혜로운 이도 어리석은 이도 모두 불행해졌는지 깨달았다. 소원은, 변하는 것에 저항하려는 노력, 즉 항상恒常하려는 아상과 아만이 간절히 원하는 선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선물을 거절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아서, 풀었다.

불교에서는 삶은 고통(고성제苦聖諦)이고 고통은 갈애와 탐착 때문에 생겨난다(집성제集聖諦)고 말한다. 불교가 아니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집착하고 갈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그것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애착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순리에 어긋나는 비인간적이고 불가능한 일인 듯 말한다. 세상에는 팔정도八正道가 없기 때문이다. 항상하지 않음 - 무상無常의 이해는 있으나 연기緣起의 지혜가 없어서, 고통이 모두 사라질 수 있으며, 고통이 모두 사라진 멸滅의 경지 - 열반도 알 수 없고, 열반에 이르는 길 - 도道를 모르기에 방황하고 절망한다. "八正道가 없으면 거기에는 사문이 없다."(D;22)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절절히 통감한다. 어린아이조차 보고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이 고성제와 집성제이다. 삶은 고통이며, 갈애와 탐착이 고통의 원인임을 안다.

소원은 이루어졌다.

나는 모든 고통을 여의고 다시는 어떠한 고통도 없는 경지에 이르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길과 방법을 알았다. 신이 되기 위해서 전지전능한 존재에게 빌거나 봉사해서 대가로 받는 '소원'은 필요 없다. 나는 온 힘과 온 정신과 온 노력을 기울일 바로 그것을 알았다. 왜 태어났는지 알았으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았다. 오랜 시간 동안 찾았기에 너무나 귀하고 고마운 선물이다. 부처님께서 첫걸음을 떼신 후, 2,60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길. 넓고, 밝고, 아름다운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면 된다. 행복은 길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걷는 것임을 알았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친한 벗으로, 스승으로 나와 함께 길을 걸어 가신다.

"나는 알아야 할 바를 알았고
닦아야 할 바를 닦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
바라문이여, 그래서 나는 붓다, 깨달은 사람이다."
「청정도론」 Ⅶ.26 ☸

도현度泫 스님의 참회, 감사, 발원

도현 / 사교과

그림 / 대교과 도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참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진짜로 존재하는가.

노오란 개나리가 활짝 웃고 매화가 방긋 웃으며 맞이하고 하얀 목련은 하늘을 수놓고 벚꽃은 땅을 수놓는 봄입니다.

가만히 앉아 화두를 들다 보면
어떤 날은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어떤 날은 몸에 벌레들이 지나다니듯 간지러우며
어떤 날은 머리 위에서 발 끝까지 폭포수가 지나가듯 시원하며
어떤 날은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마그마가 끓어오르는 듯 뜨거워져 온몸이 더울 때도 있습니다.

또한 참나에 화두와 함께 망상이 일어납니다. 가깝고도 먼 북한, 그리고 여기 있는 운문사도량까지 국적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유람구경을 하며, 과거 현재 미래 이상세계 외계세계, 알 수 없는 또 다른 세계 등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앎의 정보를 총망라해서 내 머리에 띄우기도 합니다. 또한 하얀 바탕에 무수히 많은 책들이 펼쳐져 시간과 공간의 개념도 잊은 채 공부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친구와 지리산을 다니다가 이름 모를 수좌스님께 덜컥 받아버린 화두는 당시에는 관심조차 없다가 강원에 와서 마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경을 읽다보니 오히려 화두가 선명하게 빛을 발합니다. 이것은 또 무슨 모순인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세상이지만 어쩌면 보이는 것이 전부인 이 세상에서, 저란 인간은 크고 작은 많은 틀에 저 스스로를 참 오랫동안 가두어 놓고 살았습니다. 출가를 함으로써 내 자아는 갇혀져 있던 틀들을 조심스럽게 깨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경계들에 부딪히면서 조금씩 조금씩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출가 전에 비해 별 것 아닌 일에 시시때때로 짤이 나고 화가 나기 시작했고, 혼자만의 시간이 없으니 '욱' 하는 화를 혼자 삭힐 여유도 없이 또 다른 상황이 다가오고는 하였습니다. 세속에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보기 싫은 사람은 외면하면 되었지만, 출가 후에는 미운 사람 싫은 사람 경계도 점차 없어졌습니다. 같이 얼굴 보기도 힘들었던 가족보다 더 챙겨주는 승가의 대중식구들은 편안함과 고마움을 주며 출가생활에 점차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행자시절부터 강원입학 전후로 고이 간직해두었던 제 양심이 아등바등 용을 쓰며 이제 참나로 발전하기 위하여 여러 모습에서 모순을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멋대로이며, 때로는 당황의 연속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재구성하며 자신의 본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였습니다.

겨우겨우 진정시켜 마음의 편안함을 느낄 때쯤이면 또다시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드높은 파도가 일렁이고 태풍이 불어 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울음의 바다가 된 적도 있었고, 불타는 화염의 산이 된 적도 있었으며, 멍~ 한 날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얌전해지는지, 어떻게 해야 진정되어 차분해지는지 고민 또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 태풍이 불고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파도가 일렁이는 그 모든 마음의 일들은 그냥 흘러가게끔 놔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마음은 찰나에 생기고 찰나에 흘러 찰나에 사라지는데 무명에 휩싸인 나라는 중생이 그 찰나에 올라오는 마음의 무상성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문제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번뇌는 망상에서 비롯된 '나' 라는 자의식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습니다.

드높은 아상과 아만으로 세상 만물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고 스스로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 인과를 무시하며 살아온 것을 참회합니다. 또한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했고 처해진 상황에 부족함을 느꼈으며 어리석은 분별로써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Here & Now'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며 수처작주할 수 있는 환경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도량인 운문사 금당에서 부처님의 경전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함께 공부하고 있는 도반스님들과 여러 어른스님들을 모시고 대중들이 있는 곳에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재발심해서 소소영영히 정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여러 과정들을 지나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하여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라고 지어주신 '度弦' 이란 법명대로 이름값 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발심

보경 / 대교과

그림 / 대교과 도행

출가해서 지금까지 저를 지탱한 것은 젊은 열정이었습니다. 때론 마음만 앞서 아프기도 했지만 열정과 정성으로 소임을 살았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오백전 기도소임을 살면서 제 삶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 소중한 경험을 대중 스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철 저는 도반 스님들의 배려로 운 좋게 기도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몇몇 스님들은 몸도 약하면서 왜 하필 추운 겨울에 법당 소임을 맡느냐며 걱정했지만 그때마다 저는 추워야 더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냐며 웃어넘기며 호기롭게 오백전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적응하느라 추운 줄도 모르고 염불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어느 정도 염불이 편하게 되자 추위가 느껴졌지만, 이 또한 염불로 이겨내려고 목이 쉬도록 고성염불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보살님이 열심히 절을 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제가 소임을 들어간 첫날부터 거의 매일같이 기도하러 오신 분인데 그날 따라 그 보살님의 기도가 간절하게 보여서 보살님의 소원이 무엇이든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저에 대해 돌아보았습니다. '출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누군가의 기도 성취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줄 만큼 잘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답답하고 부끄러워졌습니다. 부전 소임이니 기도 시간은 어김없이 돌아오고 그때마다 기도하는 보살님을 접할 때면 한결같은 정성에 감복해 보살님의 소원이 성취되었으면, 그래서 그 삶이 조금 편안할 수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끝나자 추운 겨울인데도 겉옷까지 땀에 젖었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 한번이라도 이렇게 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었던가?

스님이라고 불리지만 늘 '나' 를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자신을 위해서는 돈 한 푼 쉽게 쓰지 못하는 보살님들이 절이나 스님들에게는 조금도 아까운 마음 하나 없이 기꺼이 다 내놓는, 그런 공양을 내가 받아서 그 보살님들에게 복으로 다시 되돌려

줄 수 있을까?

한번 시작하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도 그런 생각은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또 보살님과 함께 기도를 하고, 감사하다며 인사하는 보살님이 부담스러워 말했습니다. "보살님, 저는 기도를 하고 축원을 해 드릴 수는 있지만 보살님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라고…. 그래도 보살님은 이미 기도를 성취한 것같이 홀가분하다며 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는 가셨고 저는 또 법당에 혼자 남아 도대체 스님다운 스님은 어떤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어떤 답도 바로 나오질 않아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중 우연히 도반스님들과 함께 선지식 탐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저희를 꾸짖듯이 선지식께서는 선가귀감이나 자경문, 금강경오가해의 핵심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이제 배우기 시작할 화엄경에 대한 강의를 그림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하고, 제목을 설명해 주기도 하셨지만 저는 그 말씀들 중에 "업을 녹이려면 참선을 해야 돼. 기도로는 업을 녹일 수가 없어,"라고 하셨던 것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몇 번을 참선을 해야 업을 녹인다는 말을 되새기다가 '그래, 스님이 되어서 자기 업도 못 녹이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는 없지.' 라며 참선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 후 방학 출타 때 참선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자 또 다른 선지식을 찾았는데 몸이 마를 대로 말라서 제대로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하는 저를 보셨는지 참선도 건강한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스님의 말씀에 그 동안 몸을 돌보지 않았던 저를 원망하며 제 몸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개학날이 다 되어가니 문득 제 모습에 웃음이 났습니다. 한 번도 수행에 의미를 두거나 용맹심이라는 걸 내보지 못했던 제가 전혀 모르는 보살님 한 분으로 인해서 수행의 방향을 새로 잡고, 공부할 마음을 내고, 자기 몸 챙기는 것이 꼴사납다고 여기며 거부하다가 공부해야 되니까 건강해야 된다며 약을 찾고 있었습니다. 순간 오백전 부전이라는 소임이 저를 정말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소임을 살 수 있게 배려해준 도반스님들이 새삼 고마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소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저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살고 계시겠지요?

이제는 소임을 놓고 화엄반으로 올라온 저는 한 보살님으로 인해 재발심한 그 마음 놓지 않고 일할 때는 급한 마음보다 차분한 마음을 내고, 사람에 있어서는 기대보다는 그냥 상황에 따라, 스스로에게는 몸을 잘 다듬어서 물러나지 않고 늘 참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새 스님들의 새봄맞이

편집부

1 벚꽃 아래서, 그대와 함께
2 연등만들기 대중울력
3 치문반의 엘백씨+막내
4 장군바위에 오른 치문반
5 같이 해요, 즐거운 봄놀이
6 소풍을 다녀와서, 봄내음상매
7 화전 굽는 사교반스님들
8 순간의 인연이 모이다
9 자비탁발 가는 화엄반스님들
10 함께 가는 우리들, 사집반
11 함께 해서 더욱 아름다운 수행
12 자비화현, 화엄반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서

지선 / 사교과

참될 진眞자 진심으로,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차례법문을 하게 된 사교반 지선입니다. 진심이라는 한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진심眞心)과 성내는 마음(진심瞋心)이 그것인데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스님들께서는 이 두 가지 마음 중 어떤 마음을 바라십니까?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저는 또 다른 성내는 마음으로 인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사집반 겨울 한 철 동안 불쑥불쑥 일어나는 화를 참지 못해서 크고 작은 실랑이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공연히 혼자 화를 내거나 도반 스님들에게까지도 화를 내게 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화를 멈추고 무엇 때문에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지 차분히 살펴보자' 하면서 속으로 '릴렉스 … 릴렉스 …' 를 수없이 외치며 다독여 보아도 잠깐 그 때뿐. 조금 있으면 또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화를 냈다가 화가 난 자신을 보고 진정을 시켰다가 다시 화내는 상태를 반복하면서 '왜? 스스로의 마음 하나 주체하지 못하고 갈광질광 흔들리면서 괴로워하는가?' 공연히 자신을 질책하고 미워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집반 겨울을 보내고 겨울방학 동안 선방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인연있는 스님께 대중공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마음에 의문이 드는 일이 있거나 갈피를 잡지 못해 힘들어 할 때면 스님께 조언을 구하곤 했기 때문에 스님에게 지난겨울을 살면서 참지 못하고 화를 내어서 괴롭고 힘들었던 것과 상대방의 마음까지 일으키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신 후 스님께서는 "네가 화가 나는 때를 잘 생각해봐라. 너 자신에게보다는 상대방에게 내는 화가 더 많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나?" 하고 물으셨습니다. 물음을 듣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자신이 부끄럽고 얼굴이 붉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네가 화난 이유는 간단하다. 너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배려하거나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너의 뜻에 반하는 일이 생기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신 후 "네가 성을 냄으로써 마음을 일으키게 된 상대에게 참회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스님의 말씀을 통하여 타인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일어나거나, 나로 인해서 상대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허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화엄경』, 『보현행원품』에서는 "보살이 모든 보살에게 한번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백만 가지 장애가 되는 문을 이루게 되며, 어떤 법의 허물이라도 보살이 다른 보살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큰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내는 마음은 마치 공덕의 창고를 불태워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동안의 저는 수없이 많이 성냈습니다. 오해를 해서 성을 내기도 했고,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성을 내기도 했고, 상대를 존중하지 않음으로 해서 성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수행에 방해가 되고, 공덕을 없애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성부터 내곤 했습니다.

어느덧 금당에 입성하여 사교반이 되고 보니 전에 보이지 않던 상반, 하반스님들의 모습이 보이고 동주도반들에 대한 배려심과 따뜻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부터 다툼이 없는 무쟁삼매無諍三昧를 성취한 수보리 존자를 본받아 밖을 향하던 성내는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서, 자신의 수행을 성숙시키는 청정한 에너지로 전환시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대중스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의 약속을 지켜보는 증명법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행복한 수행자 되십시오.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결코 유쾌하지 않지만 나를 바라보는 수행

인우 / 사집과

안녕하십니까? 벚꽃이 한창 흩날리는 운문승가대학에 들어와 수행의 목적이 같은 많은 대중스님들과 함께하여 행복한 사집반 인우입니다.

출가해서 자주 듣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봐주지 못 하는 것은 그 허물이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이란 이야기입니다. 저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어떻게 저런 모습, 저런 생각, 저런 언어사용을 내가 용납할 수 있겠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면서 저와는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출가를 하고 치문을 보내면서 수도 없이 벽에 부딪힙니다. 저와 다른 도반들의 모습에 입 바른 소리 하면서 참견도 해보고, 못 본 척, 못 들은 척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며 자기 분에 못 이겨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사집반이 되었습니다. 새 학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요즘 새삼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싫어하는 그 모습들이 왜 내 모습이라고 하는지 어렴풋하게나마 느껴져 시간이 날 때마다 화두처럼 붙잡고 있습니다.

때때로 범고를 치러 종각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저도 모르게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종각에는 대종을 치는 시간이 표시된 카드가 각각 새벽, 정오, 저녁 때에 맞춰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각에 비치되어 있는 그 카드는 오늘도 뒤섞여 있습니다. 그 뒤섞인 카드를 보면서 또 마음을 일으킵니다. '새벽에 대종을 치고 순서대로 정리한다면 다음에 대종을 치기 위해 올라온 사람이 수고롭게 카드를 뒤적이며 찾지 않아도 될 텐데…' 라고 마음을 일으키면서 카드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나는 왜 이렇게 유난스러운가?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 일인데, 스스로 생각을 내어 힘들어 하는 이유는 무얼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득 가사장삼을 탈하면서 '나는 내 안의 잣대가 생겨 있지만 다른 사람은 이 일에 대한 잣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에 대한 어떠한 나만의 기준이 서 있다는 것! 그것은 내 안에 그 씨앗이 자리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 씨앗이 자라고 있

다는 것은 이미 그 일은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 즉 제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다른 사람의 시비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하고 생각해봅니다. 이젠 예전처럼 쉽게 질타하고 싫은 내색 하는 일들이 조심스럽습니다.

잘 할 수 있다고, 잘 해왔다고 생각했던 하심의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쉽게 풀이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없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 자체가 하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심을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을 뿐 오히려 전혀 하심이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온몸을 덮쳐와 도망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운서주굉 스님의 '죽창수필'에 '세상의 재색이나 명리의 경계에 대처' 하는 것을 비유로 밝히신 글이 있습니다. 큰 불덩이가 있고 그 옆에는 다섯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물건은 마른 풀, 나무, 쇠붙이, 물, 허공입니다.

첫 번째 마른 풀과 같은 것은 불덩이에 닿기만 하면 금방 타 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나무와 같은 것은 바람이 불면 타 버립니다. 세 번째는 쇠붙이와 같은 것이니, 이것은 태울 수는 없으나 녹일 수는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물과 같은 것으로 이 물과 같은 것은 불로 태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을 꺼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물은 솥에 부으면 끓여 없앨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허공과 같은 것은, 태우든 말든 본체는 항상 변함이 없으며 또한 불을 끄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꺼져버리고 맙니다. 이 다섯 가지 중 닿기만 하면 금방 타 버리는 마른 풀과 같은 것은 범부의 경계요, 나무와 쇠붙이, 물 등은 수행하는 이의 경계이며 다섯 번째 허공의 경계여야만 비로소 부처님 이래 대성인의 경계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경계에 대처하고 있을까요? 대중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대처가 잘 되십니까? 혹여 저와 같이 마른 풀로 큰 불덩이를 꺼보겠다고 바람만 일으키다가 그 불덩이를 오히려 더 키우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마른 풀마저도 훨훨 태워 날려버리는 범부의 경계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대중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부딪힘 속에서 지금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 해 하루에도 몇 번씩 제 마음에는 부처님과 마라의 마음이 수도 없이 번갈아 찾아들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코 유쾌하진 않지만 나를 바라보면서 또 한걸음 더 여법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성장해갑니다. 감사합니다.

낮은 곳에 임하소서

원빈

'머리가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냄비를 올렸다면 아마 끓어올랐을 거예요.'

생애 첫 설법의 느낌입니다.

약 300여 명의 학인 스님들과 교수 스님, 그리고 학장이셨던 종범 스님 앞에서 저는 생애 첫 설법을 했습니다. 약 10여 분의 시간 〈달마 관심론을 통해 본 오분향례〉라는 주제를 말했던 그 때, 지금 돌아보면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2년 차 사미부터 14년 차 비구가 된 지금까지 매주, 매월, 매년 끝없이 해야만 하는 이 설법 마라톤이 말입니다.

사미니 스님들을 교육하는 제일의 승가대학인 운문사와 글로써 처음 인연이 닿으며 요청받은 주제는 포교의 전면에 나서게 될 학인 스님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조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말을 가리고 가려서 숙고한 끝에 한 가

지로 줄였습니다. 이 한 마디가 글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부디 낮은 곳으로 임하시길."

팔상성도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첫 설법은 녹원전법상입니다.

오비구는 부처님을 보자마자 '배신자인 고타마가 다가와도 모른 척하고, 그의 발우를 들어주지도 말자.' 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빛나는 부처님의 위의를 목격하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처님의 발우와 가사를 받아드리죠. 이렇게 이미 존경심이 생긴 오비구의 마음에 부처님의 감로설법은 일사천리로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오비구는 불사의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불자들의 마음속에 기억되는 부처님의 첫 설법은 이러한 장면처럼 성공적입니다. 하지만 마하박가를 통해 살펴보는 초기교단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과 거리가 먼 부처님의 교화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부처님은 깨달음 이후 오비구와 만나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교화에 성공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반대로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죠.

부처님의 깨달음 이후 첫 설법은 홈홈 바라문과의 질의응답입니다. '진정한 바라문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부처님은 답변하시죠. 하지만 바라문은 훌륭한 답변을 듣고도 부처님께 귀의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떠납니다. 첫 번째 법문에서 부처님은 교화에 실패한 것이죠. 다음으로 인연된 용왕 무짤린다와 두 명의 상인은 그저 앉아 계신 부처님의 모습에 반합니다. 오직 위의만으로 교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후 오비구를 만나기 위해 떠나는 길 위에서 만난 사명외도 우빠까는 역시 부처님의 위의에 반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벗이여, 그대의 감관은 맑고 피부색은 청정하다. 벗이여, 그대는 누구를 의지하여 출가하였으며, 그대의 스승은 누구인가, 누구의 가르침을 즐겨 배우는가?"

이에 대한 부처님 답변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일체를 극복한 자, 일체를 아는 자이다. 일체의 사실에 오염되지 않았고, 일체가 버려졌고, 갈애가 부수어져 해탈되었다. 스스로 곧바로 알았으니, 누구를 스승으로 삼으랴?"

어떤 스승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불사의 문을 열어 일체지자가 되었다는 무상사無上士의 말씀은 온전히 진실입니다. 하지만 결코 상식적이지 않았죠. 그렇기에 우빠까는 고개를 흔들며 '벗이여,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하고는 떠나갑니다.

우빠까를 비롯한 홈홈 바라문, 용왕, 상인들이 부처님께 다가온 것은 깨달은 이들이 가진 밝게 빛나는 위의 때문입니다. 위의로 인한 교화는 충분히 성공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한 교화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으니 이 부슨 조화인가요? 일음一音으로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힘을 지녔다고 알려진 부처님의 훌륭한 설법이 초기에는 왜 진리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못했던 것일까요?

사실 부처님은 녹야원에서 법륜을 굴리기 위해 유행을 떠나기 전, 내적인 갈등을 겪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마하박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 진리를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피곤이 되고 나에게 곤경이 될 것이다."

부처님은 자신의 지고한 깨달음의 설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과의 인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셨던 것 아닐까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에서 녹야원까지는 수백 킬로의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탁발하며 유행하는 동안 부처님은 본인의 밝게 빛나는 깨달음을 전달하는 테크닉, 즉 설법방식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문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저 의미없는 말에 불과하니까요.

이런 숙고의 결과물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초전법륜의 주제입니다. 초전법륜의 주제는 사성제, 삼법인이 아닌 실천적 중도입니다. 철저히 청자의 수준에 초점을 맞춰 근기에 맞는 설법 주제를 선택하신 것이죠.

오비구는 석가족의 왕족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고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인간 삶의 다양한 쾌락을 즐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따라 고행을 시작한 이후에는 극단적인 고행을 추구했죠. 부처님은 이 양극단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잘 조율된 생활방식과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설법하셨고, 이미 그에 대한 경험이 있던 오비구는 쉽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전의 설법이 자신의 깨달음을 있는 그대로 선언하는 방식이었던 것과는 사뭇 그 태도가 다릅니다. 비로소 부처님의 위대한 눈높이 교육이 시작되는 것이죠. 본인은 진리의 의식에 있지만 그곳에서 내려와 중생의 수준으로 다가가는 여래如來의 대기설법으로 인해, 다양한 근기의 존재를 섭수하는 진리의 문이 마련된 것입니다.

2010년 갓 비구계를 받고 군법당 주지로 임명받았을 때, 저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미 설법이 훌륭하다는 인정을 첫 법문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받았기에 하던 대로만 하면 당연히 병사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착각이 깨지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주 동안 뒤에서 고개 숙이고 잠에 드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설법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지만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돌파구가 곧바로 열린 것은 아닙니다. 약 반년 정도 졸고 있는 병사들 한명 한명을 붙잡고 물어보면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통적인 불교의 가르침과 병사들의 문화적 괴리감이 매우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숙고 끝에 한자 용어를 쓰지 않기 시작했고, 병사들이 잘 할 수 있는 수단인 '독서'라는 매개체를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종교적인 색채를 많이 뺀 인성교육에 가까운 콘텐츠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의 노력이 이어지자 병사들의 감긴 눈이 떠지고, 숙인 고개가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병사들과 눈을 마주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눈빛이 닿지 않은 이들의 마음에 말이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에 닿지 못하는 말로는 중생

의 번뇌를 끄는 소방관이 결코 될 수 없죠. 눈빛이 교환되기 전의 병사들과의 관계와 후의 관계는 혁명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을 따라보는 병사들이 종종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점점 더 보람은 커져 갔습니다.

이웃 종교의 가르침 중 '낮은 곳에 임하소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 포교적인 부분에서 이 말이 처음 포교를 시작하는 스님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님들이 바라보는 불교의 지점이 너무나 지고하면, 중생들은 불교의 높은 문턱 앞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한국불교 곳곳에서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설법자로 인정받는 부처님조차 중생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전에는 교화에 실패하셨습니다. 부처님이 고귀한 진리의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오직 중생을 위해 번뇌 가득한 그들의 마음자리로 낮은 곳에 임하셨듯, 스님들 역시 사람들의 근기를 조금 더 헤아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불교의 사부대중 구성 비율이 노령화된 이유,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도뿐 아니라 출가자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이 부처님의 설법방식을 제대로 본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차제에 걸맞도록, 중생의 문화와 근기에 맞춰서 설법하셨던 부처님의 모습을 닮으려는 노력이 현재의 승가에는 부족한 것이죠. 심리 상담을 강의하시는 한 교수 스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법상에 앉아서 청중들에게 필요한 말,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말이 아니라 법사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한다면 그 법사는 청중들에게 상담을 받은 것이기에 상담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높은 법상에 올라 설법을 하는 것은 법의 고귀함을 상징합니다. 청중들은 자연스럽게 스승을 우러러보는 위치에 놓이게 되죠. 이러한 설법형식 또한 유용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님들의 시선이 너무 상당 법문에만 치우친다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눈높이를 맞출 곳이 없으니까요.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자비롭게."

법사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중생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말을 할 때, 이것이 말이 아닌 법문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문도 부처님의 열반법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되지 못한다면 설법이라는 가면을 쓴 의미 없는 소리일 뿐입니다. 반대로 저잣거리의 속어라도 누군가를 열반법으로 끌어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법의 문(法門) 역할을 한 것이겠죠.

앞으로 시작될 학인 스님들의 '말' 이 중생들을 법의 문으로 이끄는 진정한 법문이 되기를 두 손 모아 발원합니다!

원빈 스님은 현재 경남 산청 송덕사와 서울 서초 자등명선원 주지이자, '자비도량 만일기도' 와 청년커뮤니케이션 모임 '블루붓다' 의 지도법사, BTN 불교TV '청춘토크쇼 절친'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연, 법회, 스터디 등을 통해 많은 대중과 소통하며 행복학 불교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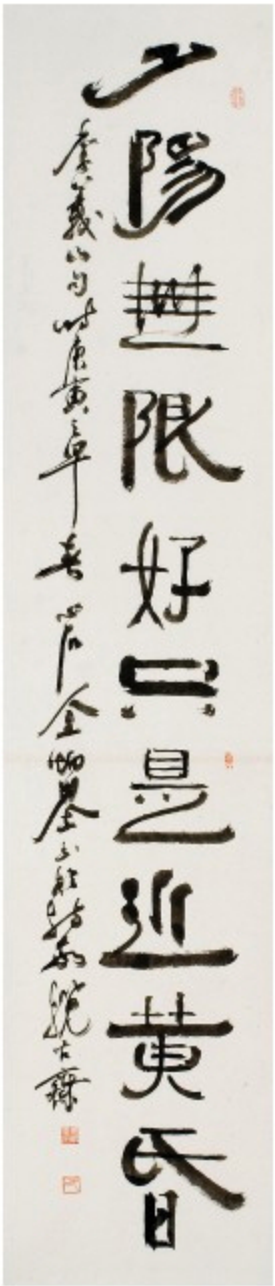
재미있는 '짧은 글' 로 시작한 나의 한문 공부

김병기

어린 시절, 우리 집은 가난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내가 서예를 할 수 있도록 붓과 먹과 종이는 꼭 사주셨다. 그리고 틈이 나는 대로 『천자문』, 『추구』, 『사자소학』, 『명심보감』 등 한문을 가르쳐 주셨다. 나를 데리고 들길을 걷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는 지나가던 개를 가리키시며 한 번 불러 보라고 하셨다. 요즈음이사 개에게 '메리', '해피', '하니' 등 영어 이름을 많이 붙이지만 당시에는 동네 개는 다 '워리' 라고 불렀다. 내가 "워~리" 하고 개를 불렀더니 아버지께서는 "그래, 사냥개를 부를 때는 '워리' 라고 하는 거다." 고 하시며 '워리사냥개' 를 몇 번씩 반복하시며 따라 하라고 하셨다. "워리사냥개, 워리사냥개…" 한참을 걷다가 아버지는 문득 산비탈에 누워 있는 소를 가리키며 한 번 불러 보라고 하셨다. 소라면 어느 소라도 다 '이랴!' 라고 불렀으므로 나는 망설임 없이 "이랴!" 하고 불렀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래, 누운 소를 부를 때는 '이랴' 라고 하는 거지? '이랴누운소' " 라고 하시면서 "이랴누운소" 를 서너 번 따라 하게 하셨다. 그러고선 앞에서 했던 '워리사냥개' 와 합하여 "워리사냥개, 이랴누운소" 를 반복하게 하셨다. 그날 저녁, 아버지께서는 내게 다음과 같은 한문 구절을 써 보여 주셨다.

月移山影改, 日下樓疵疏.(월이산영개, 일하누흔소.)

그리고 각 글자를 알려 주시고 "달이 옮겨가니 산 그림자가 고쳐지고(바뀌고), 해가 지니 누대 그림자가 성글구나(희미하구나)" 라는 뜻풀이도 해 주셨다. 그런 다음에 소리 내어 읽어보라고 하셨다. "월이산영개, 일하누흔소." 읽다보니 왠지 귀에 익은 발음이었다. 문득 그날 낮에 아버지를 따라 읊조렸던 "워리사냥개, 이랴누운소" 라는 말이 생각났다. 폭소를 터뜨렸다. 이



李義山句, 時庚寅之早春, 心石金炳基書於特敎實古齋

이의산(이상은, 중국 晩唐 813~858)의 시구. 때는 경인년 이른 봄, 심석 김병기가 지겸림고재에서 쓰다.

날 이후, 나는 지금에 이르도록 "워리사냥개, 이랴누운소."라는 우스갯말로 외운 "月移山影改, 日下樓疎疏."라는 한시 한 구절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나의 한문 공부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내 또래에 비해 월등하게 한문을 잘 했던 나는 초등학교 내내 학교성적이 전교에서 1등이었다. 중학교에 다닐 때는 『명심보감明心寶鑑』을 배웠다. 촌철살인의 감동을 주는 짧은 구절의 매력에 더 깊이 빠져 들게 되었다.

일을 만들면 일이 생기고, 일을 줄이면 일이 준다.
(生事事生생사사생, 省事事省생사사생)

같은 발음의 다른 뜻, 그리고 오묘한 한자의 문법체계에 대해 깊은 흥미를 느낀 구절이다. 이렇게 이어진 나의 한문공부는 27살 때 대만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본격화되었다. 한시의 대가이신 왕중汪中 교수님의 문하생이 된 후,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며 한시의 매력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 1983년 10월 하순경,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의 선생님이신 그 유명한 대정농臺靜農 교수님 댁에 가자면서 나를 부르셨다. 대정농 교수님 댁은 왕중 선생님 댁의 서편 방향에 있었다. 서편 하늘에 석양이 기울고 노을이 지기 시작하였다. 감히 나란히 걷지 못하고 선생님의 오른편에서 한 걸음 정도 뒤를 걷고 있는 나를 불러 가까이 오라고 하시더니 선생님께서는 노을을 가리키시며 다음 구절을 읊으셨다.

夕陽無限好석양무한호 석양은 한없이 아름다운데
只是近黃昏지시근황혼 단지 아쉬운 건 황혼이 가깝다는 것!

나는 이날 왕중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비로소 석양과 황혼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 석양은 태양이 서편으로 기울어져 가는 늦은 오후를 이르는 말이고, 황혼은 이미 태양은 저버리고 하늘에 붉은 노을만 깔린 상태를 말한다. 하루도 석양 무렵이 정점이고 인생도 50~60대 석양 무렵이 정점이다. 정점은 가장 아름다운 시기이다. 다만 아쉬운 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태양은 사라지고 황혼만 남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아쉬움을

담은 당나라 말기의 시인 이상은李商隱의 이 멋진 구절이 그제야 가슴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1984년에 아내를 맞았다. 아내를 맞음으로써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신 또 한 분이신 장인 신광철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서양철학이 전공이었지만 한문에도 조예가 깊었던 장인께서는 어느 날, "내가 아는 이별 시 중에서는 이보다 곡진한 이별시는 없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짧은 구절을 써보여 주셨다.

含淚眼看含淚眼함루안간함루안 눈물 머금은 눈으로 눈물 머금은 눈을 바라보다가
斷腸人送斷腸人단장인송단장인 애 간장이 끊기는 이가 애간장이 끊기는 이를 보냈네

임진왜란 당시 평양의 명기였던 계월향桂月香의 작품으로 알려진 시이다. 같은 단어의 한자를 교묘하게 운용한 이 명구 앞에서 나는 또 한 번 적지 않은 감동을 받았다.

대만 유학을 마치고 대학교수가 된 나는 학생들에게 중국 고전시가를 강의하게 되었다. 학생들과 함께 한시를 외우며 즐겁게 강의하는 가운데 나는 더 많은 시를 접하고 또 외우게 되었다. 중국문학과 서예가 전공인 나는 연구논문이나 책을 읽다가 외워둠직한 한 구절을 만나면 반드시 따로 노트하여 모으곤 하였다. 그렇게 모은 짧은 명구名句에 내 나름대로 해설을 붙여 〈김병기 교수의 한문 속 지혜 찾기〉 시리즈 4권을 출간했다. 제1권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제2권 《나 말고 누가 나를 괴롭히겠는가》, 제3권 《보는 이 없다고 피어나는 향기를 거두랴》, 제4권 《눈물어린 눈으로 꽃에게 물어도》가 바로 그것이다. 나는 이처럼 짧은 시문들을 모아 외우고 또 나름의 해설을 붙이면서 적잖이 마음공부를 한다. 나의 마음공부에 도움을 준 몇 구절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目不能兩視而明목불능양시이명 눈은 두 곳을 보면서 밝게 볼 수 없고
耳不能兩聽而聰이불능양청이총 귀는 두 소리를 들으면서 또렷하게 들을 수 없다

着意種花花不活착의종화화불활 각별히 마음을 써서 꽃을 심어도 그 꽃은 살지 않더니만
無心栽柳柳成陰무심재류류성음 무심히 꺾어 꽂은 버드나무는 오히려 녹음을 이루었네

莫爲無人欺一物막위무인기일물 사람이 없는 곳이라고 해서 한 물건이라도 속이려 들지 말라
他時須慮石能言타시수려석능언 다른 날, 돌이 말을 할까봐 걱정하게 될 테니

눈도 귀도 한 곳으로 모아 정신을 집중해야 비로소 제대로 보고 들을 수 있다. 내 자식이 귀하다고 해서 늘 꽃 가꾸듯 과잉보호하면 오히려 자식을 망치게 되니 무심히 꺾어 꽂아도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버드나무처럼 키워야 한다. 아무도 없는 곳이라 해서 함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있던 돌이 그 거짓말을 다 들어 두었다가 훗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어찌하겠는가? 이

런 짧은 글들은 다 내게 『명심보감』의 역할을 한다.

나는 최근에 내 스스로 새로운 호 하나를 지었다. '유발화상留髮和尙'이라는 호이다. '머리털을 남겨둔 스님'이라는 뜻이다. 비록 머리는 깎지 않고 속세에 살지만 마음만은 수도하는 스님처럼 보다 더 근신하고자 하는 생각에 지은 호이다. 유발 화상으로 살면서 내 나름대로 기상과 꿈을 기르고 또 펼쳐 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지리산 자락에 묻혀 단 한 번도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은 채 오로지 학문연마와 제자양성에만 전념한 남명南冥 조식曺植(1501~1572) 선생의 시 한 수가 생각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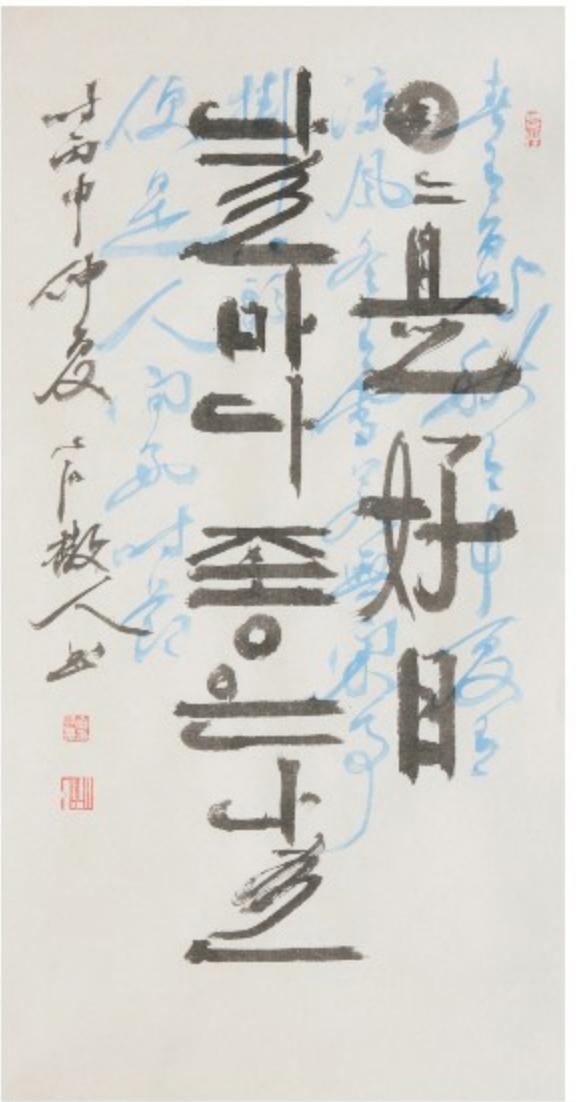
請看千石鐘 청간천석종 자! 보시오. 여기, 천 석들이 종이 있소.
非大扣無聲비대구무성 크게 두드리지 않으면 소리를 내지 않는답니다.
爭似頭流山 쟁사두류산 어떻게 하면 저 두류산(지리산)을 닮아,
天鳴猶不鳴 천명유불명 하늘이 울어도 오히려 울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시를 읊조릴 때마다 정말 하늘이 울어도 오히려 울지 않는 지리산보다도 더 도량이 넓은 사람이 될 꿈을 꾸곤 한다. 하찮은 일 앞에서 야단을 떠는 일일랑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런 생각 끝에 스스로 한 구절을 지어 자계自戒의 글로 삼았다.

花在靜裏開화재정리개 꽃은 조용한 가운데 피고
草於默中長초어묵중장 풀은 말 없는 가운데 자라는데
人豈囂囂乎인기효효호 사람은 어찌 그리도 떠들썩한지?

어린 시절, 아버님 덕택에 짧은 한문 구절을 접하게 된 이후, 나는 지금도 아름다운 짧은 시와 문장을 보면 그것을 외우며 몸과 마음을 닦는다. 그리고 한문이 가진 깊은 함축미와 다양한 의미전달 방법에 수시로 감동을 받곤 한다. 학생들에게 나의 이런 경험을 전해 주고 싶지만 세상이 자꾸 한문과 멀어지고 있으니 안타깝다. 나의 아버님이 그랬듯이 내 자식들만이라도 잘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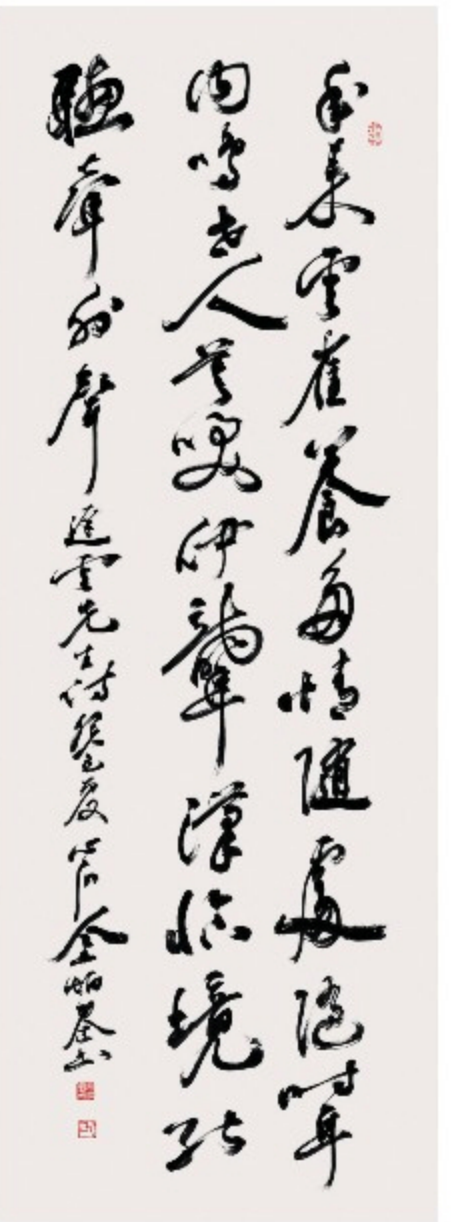
김병기 교수님은 현재 전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한국서예학회, 한국중국문화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총감독 및 국제서예가협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日日是好日 날마다 좋은 날

春有百花秋有月,
夏有凉風冬有雪.
若無閑事掛心頭,
便是人間好時節
봄에는 온갖 꽃이 있고, 가을에는 달이 있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있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니,
만약 우리네 마음에 쓸데없는 생각만 없다면
그게 곧 인간 세상의 가장 좋은 시절이라네.
– 무문혜개無門慧開 선사

時丙申仲夏 心石散人
때는 병신년 중간 여름에 심석 산인. 心石은 김병기의 호, 散人은
'욕심 없이 한가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종달새〉
지운(遲雲, 遲耘: 金鎭洙, 1893~1986, 독립운동가), 67×204(cm)

年來雲雀養多情,
隨處隨時耳內鳴.
世人莫笑伊戇漢,
臨境能聽聲外聲,
요 근래 몇 년 동안 종달새를 키웠더니만 '요 녀석들이 정이 들었나?'
아무 데서나 때도 가리지 않고 내 귀 안에서 우네.
세상 사람들아! 날더러 이명증을 앓는 귀머거리라고 놀리지 마시오.
때를 당해 꼭 들어야 할 말이라면 소리 밖의 소리까지 다 듣는다오.

내소사

도종환

내소사 다녀왔으므로 내소사 안다고 해도 될까
전나무 숲길 오래 걸었으므로
삼층석탑 전신 속속들이 보았으므로
백의관음보살좌상 눈동자 속 눈부처로 있었으므로
단청 지운 맨 얼굴을 사랑했으므로
내소사도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도 될까
깊고 긴 숲 지나
요사채 안쪽까지 드나들 수 있었으므로
나는 특별히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다
그가 붉은 단풍으로 절정의 시간을 지날 때나
능가산 품에 깃들어 고즈넉할 때는 나도
그로 인해 깊어지고 있었으므로
그의 배경이 되어주는 푸른 하늘까지
다 안다고 말하곤 했다
정작 그의 적막을 모르면서
종양이 자라는 것 같은 세월을 함께 보내지 않았으면서
그의 오래된 내상內傷과 함께 있지 않았으면서
그가 왜 직소폭포 같은 걸 내면에 지니고 있는지
그의 내면 곳곳이 왜 낭떠러지인지 알지 못하면서
어찌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까
그의 곁에 사월 꽃등 행렬 가득했으므로
그의 기둥과 주춧돌 하나까지 사랑스러웠으므로
사랑했다 말할 수 있을까
해 기울면 그의 그리움이
어느 산기슭과 벼랑을 헤매다 오는지 알지 못하면서
포包 하나가 채워지지 않은 그의 법당이
몇 백 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의 호느낌 그의 살에 떨어진 촛농을 모르면서

리틀 붓다 – 행복을 찾아서

선운 / 운문사한문불전대학원

이 책은 클라우스 미코슈라는 독일사람이 어느 날 딸과 함께 불교사원을 방문하면서 시작됩니다. 붓다는 누구예요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딸에게 붓다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고 싶은 저자는, 붓다의 삶에 대해 가르쳐 줄 만한 어린이 책을 찾아보지만 찾지 못합니다. 결국 저자는 직접 쓰겠다고 결심합니다. 불교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니 딸을 위해 인생에 관한 책으로 하되, 불교의 향기를 간직한, 불교의 철학과 색채가 있는 모두의 책을 만들자고 마음먹습니다. 겸손한 표현이겠지요.

주인공인 리틀 붓다는 아름다운 보리수 아래에서 평화롭게 명상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에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는 그에게 농부가 충고합니다.

"여행을 떠나면 어때? 여행을 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구, 그들에게서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지. 또 친구를 많이 사귀게 될 거야."

이렇게 리틀 붓다의 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용기 있는 여인, 남편을 잃은 후 여인은 새로운 삶에 도전합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아무리 원해도 스스로 바꾸지 못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살아가야 하고, 슬픈 삶을 사느냐 행복한 삶을 사느냐는 오직 나에게 달려 있어요. 때로는 첫발을 내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만남은 잘난 척하는 교수, 여인과 리틀 붓다는 용기는 냈지만 막상 낯선 도시

가 두렵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노인이 교수 이야기를 해주며 말합니다. "마음을 열고 새로운 상황에 다가서기만 하면 된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게. 모든 것이 순리대로 펼쳐질 것이라는 믿음 말일세." 세 번째 만난 고민에 빠진 과일 장수, 원하지 않는 일을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과일장수에게 리틀 붓다가 묻습니다. "당신은 늘 바쁘다고 하지만 스스로에게 솔직하다면 집에 온 후에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 시간을 쪼개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어때요?" 등등 마치 선재동자가 선지식을 찾아다니듯 리틀 붓다는 여행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을 배워가게 됩니다.

리틀 붓다가 어둠 속의 마법사를 찾아갑니다.

그의 동굴 입구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인생에서, 당신은 늘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눈먼 마법사는 우리들 마음에 내재하는 양면성에 관한 이야기, 경험하고 싶은 면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들이 진망화합식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법사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옛날에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말했어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다. 두 마리 늑대의 끔찍한 싸움이, 한 늑대는 모든 나쁜 것들 두려움, 시기, 분노, 슬픔, 탐욕, 오만, 거짓, 죄책감, 열등감, 이기심을 상징한다. 그리고 다른 늑대는 온갖 좋은 것들 즐거움, 평화, 사랑, 희망, 나눔, 우정, 연민, 관대함, 진실, 믿음을 상징하지. 너희들 마음속에서도 똑같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세상 사람들 모두와 마찬가지로."

손자들은 잠시 생각을 하고 조금 뒤에 한 손자가 물었어요.

"어느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

우리의 인생에서 부딪히는 모든 상황은 좋은 면과 나쁜 면 두 개의 서로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 면의 문제가 다른 쪽 면에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우리가 어느 쪽 면을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동전은 늘 그대로 있습니다.

'회두시안回頭是岸' 이라는 법어가 있습니다. 머리를 돌리는 그 자리가 바로 피안(극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찾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알고 보면 가장 가까이 있으며 각자는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화엄반 자비탁발을 다녀와서

진리를 배우는 사람은 먼저 가난해야 한다. 가진 것이 많으면 반드시 그 뜻을 잃는다. 진정한 수행자는 한 벌의 가사와 바리때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 거처에 집착하지 않고 옷에 마음 쓰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진리에만 전념할 수 있다. – 도겐선사, 정법안장

벚꽃이 활짝 피던 날 화엄반 스님들이 부산, 대구, 울산, 언양, 신원리 마을로 탁발에 나섰다. 매년 해온 탁발이지만 정작 당사자인 올해의 화엄반 학인 스님들은 대부분 생애 처음이다. 4명에서 5명씩 나누어 놓은 적은 숫자에 위축되어서일까? 목소리마저 작으면 안 되지 싶어 먼저 가슴을 펴고 큰소리로 염불을 시작했다. "나무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일단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시장 상인들의 시선이 느껴진다. 조용히 시선을 두었다가 한두 분씩 다가와서 동참하기 시작한다. 움츠렸던 어깨가 펴지고, 사람들이 자세히 보이기 시작했다. 이동 시간을 빼면 대략 5시간 정도를 "나무 석가모니불"을 외치며 시장통을 돌아다녔다. 긴장해서일까? 시간이 성큼성큼 간다.

운문사는 해마다 화엄반 스님들을 중심으로 하루 탁발을 해왔다. 탁발로 모금된 돈은 도움이 필요한 단체로 보내진다. 아무리 좋은 글을 외우고 이야기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남의 소만 세고 있는 목동일 뿐 참된 수행자라고 할 수 없다. 비록 하루지만 학인 스님들에게 탁발은 삶의 현장에서 출가자의 수행정신을 되새김하는 배움의 공간이자, 소통의 공간이다.

부처님 당시의 스님들은 오직 탁발에만 의존해서 살았다. "법이 아닌 것에 의지하여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지 말고, 마땅히 몸의 행동을 깨끗이 하고, 입과 뜻의 행동을 깨끗하게 하여 無事 가운데 머물러 분소의를 입고 항상 걸식을 행해야 한다. 차례로 걸식하여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멀리 여의는 것에 즐겁게 머물러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을 익혀라(중아함경, 13권)." 그러나 또한 고

정된 것은 없어서 불교가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걸식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라는 자급자족의 사원경제체제로 변화하게 되었다. 추운 날씨와 문화적 풍토에 적응한 것이다. 지금은 탁발이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었지만 뜻 있는 스님들에 의해 탁발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부처님 당시 탁발의 모습은 어땠을까?

금강경에 보이듯 부처님께서는 천이백오십 제자와 함께 성으로 들어가 차례로 걸식하셨다. 가사를 맞추어 대열을 이룬 스님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엄한 행렬이었을 것이다. 탁발을 할 때 마음과 몸의 자세에 대해 아함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새벽 동이 틀 때 옷을 입고 발우를 가지고 마을에 들어가 걸식하는데 몸을 잘 수호하고, 모든 감각 기관을 잘 거두고, 생각을 잘 세워야 한다(중아함경, 48권)"

"비구들이여, 마땅히 달처럼 살고, 처음으로 중이 된 이처럼 수줍어하고 부드러우며 겸손하고 교만이 없이 마음을 단속하고, 얼굴을 바르게 하여 남의 집에 들어가라"

"비구의 법은 마치 손으로 허공을 젓는 것처럼 무엇에 집착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물들지 않는 마음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다. (잡아함경, 15권)"

탁발은 단지 음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일환이며, 재가 신자에게 모범된 행동을 보임으로써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방법이었다. 탁발승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마을에 들어가서 계율을 어기지 않아야 하고, 얼굴과 행동을 단정히 하여 밥을 베푸는 이에게 신심과 환희심을 내게 하며, 음식을 탐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탁발은 스님에게는 말 그대로 발우에 몸을 맡기는(托鉢) 하심의 과정이며, 재가자에게는 자기 물건에 탐하는 마음을 끊고 복을 짓게 하는 행위인 것이다.

시장 구석구석에서, 혹은 병원에서 투병중인 신도분들이 소중하게 담아주는 보시는 지금 내 삶의 근거가 무엇인가 돌아보게 하였다. 승가에서 매일 발우를 펴서 번거롭게 밥을 먹는 이유도 역시 이러한 탁발의 의미를 기억하고, 대중 속에서 화합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사집과 스님들이 배우는 선가귀감禪家龜鑑, "선가에서 거울로 삼는 지침"에 나오는 구절로 이번 탁발에서 몸으로 얻은 뜻을 새김하고자 한다.

아! 불자여, 한 벌의 옷과 한 끼의 음식이 농부들의 피이고 직녀들의 땀이거늘 도안(깨달음)을 밝히지 못하면 어찌 녹여내겠는가?(於戱라 佛子여 一衣一食이 莫非農夫之血이요 織女之苦어늘 道眼이 未明하면 如何消得이리요.) 合

▲ 치문반 사리암참배

▲ 봄철 대중포행

▲ 봄철 법공양

▲ 운문사 칠성도 환수공개

▲ 봉소풍가는길

운문소식

- 3월 22일 봄철 개학공사 및 대학원 5명, 승가대학 26명 신입생스님 방부가 청풍료에서 있었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신중기도 입재를 했습니다.
- 3월 24일 3일간의 신중기도 회향 후 소금뭍기가 있었습니다.
- 3월 27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큰법당에서 열린 제11차 비구니 정기총회에 학장스님과 교수스님, 대학원스님이 참석하였습니다.
- 3월 27일 치문반스님들이 사리암과 문수선원을 참배하였습니다.
- 4월 3일 화엄반스님들이 대구, 경산, 부산, 울산, 언양, 신원리에 자비탁발을 다녀왔습니다.
- 4월 6일 봄철 첫 자자自恣가 있었습니다.
- 4월 7일 법공양 및 제12회 청도유등제에 어른스님과 화엄반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4월 9일 청도 대감사 회주이신 설우 스님의 금강경 강의에 학장스님과 교수스님, 대학원, 화엄반, 사교반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4월 9~11일 학인스님들의 관물장 검사가 있었습니다.
- 4월 12일 직지사에서 제38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회향식에 학장스님께서 교수사, 니尼 존중아사리로 참석하셨으며, 운문사 제54회 졸업생 27명의 스님들이 비구니계를 수지하였습니다.
  세계비구니 평화대회에 교수스님, 대학원, 화엄반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4월 13일 일제강점기 때 반출되었던 운문사 칠성도가 돌아왔습니다. 뉴욕의 한 경매시장에 나온 칠성도를 조계종 문화부, 운문사, 미국 불광선원의 협조로 낙찰받았습니다. 4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환수공개행사를 가졌습니다.
  봄철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4월 14일 대자원법회가 있었습니다. 53명의 대자원 아이들과 온사를 맺은 스님들이 도량 곳곳에서 즐거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4월 15일 학장스님께서 무주 향산사 창건 100주년 법회에서 여섯 번째 법사로 법문하셨습니다. 이 법회에 대학원스님과 운문사 자원봉사자 분들이 동참하였습니다.
- 4월 16일 봄소풍 다녀왔습니다.
- 4월 17~20일 제26회 식차마나니 수계산림에 학장스님께서 갈마사로 참석하셨고, 사교반스님 21명이 수계하였습니다.
- 4월 18일 삼월 삼짇날 연례행사인 처진소나무 막걸리주기가 있었습니다.
- 4월 19일 운문면사무소에 화엄반 자비탁발성금 백만원을 기탁하였습니다.
- 4월 27~30일 선열당에서 월암 스님의 '禪사상과 수행' 특강이 있었습니다.
- 5월 3~4일 전국 사찰승가대학 및 대학원 상주교수님들의 연찬회가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제36회 비구니 교우회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교수스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 5월 5일 故원해당 홍륜 전 학장스님 3주기 추모제가 대웅보전에서 봉행되었습니다.
- 5월 11일 자자 및 방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습니다.
- 5월 12일 30일간의 봄방학이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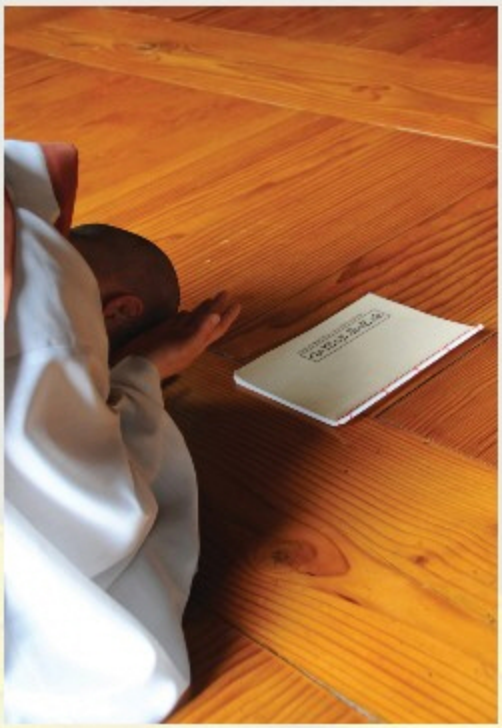
도와주신 분

• 이정숙 • 삼신사 • 정해옥 • 하옥희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황권적축黃卷赤軸



『전법정종론傳法正宗論』에 전한다. 후한 명제 영평 14년(630)에 황제가 (남악의 도사)저선신 등의 청을 받아들여 불로 태워 불경과 도가경의 우열을 시험하였다. 도가의 서적들은 모두 타서 재가 되었고 오직 불가의 경전은 태우니 황색으로 바뀌고, 축은 붉은색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불경을 황권적축黃卷赤軸이라고 이름한다.

『광홍명집廣弘明集』 귀정편 "한현종개불화법본전漢顯宗開佛化法本傳"에는 좀더 상세한 이야기가 전하는데, 5악岳 여러 산의 도사들이 단을 차려 제사를 지내고 청했다.

"지금 오랑캐의 신에게 우리 중국의 주상이 현혹되어 삿된 것을 믿는지라, 정교政敎가 실종되고 현풍玄風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신들이 감히 경전을 단상에 올려두고 불을 놓아 시험하여 어리석은 마음을 일깨워 보이고 진위를 가리고자 합니다."

그러고는 바로 경전에 불을 붙이니, 그 즉시 도가경전이 불에 타 모두 재가 되어 버렸다. 이에 도사들이 서로 돌아보며 안색을 잃고 크게 두려워하였는데 때마침 부처님의 사리에서 오색의 밝은 빛이 비추어 곧바로 공중으로 올라가 보개寶蓋처럼 둥그렇게 도는데 대중을 둘러싸고 해를 가렸다. 하늘에서는 꽃비가 스님 머리 위로 내렸다. 다시 하늘에서 갖가지 음악소리가 들려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자, 대중이 모두 기뻐하며 일찍이 없던 일이라고 감탄하였다.

이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출가가 이어졌으며 곳곳에 사찰이 세워졌다. 이 때부터 불법이 홍성하였는데, 이후로 불경을 누런 종이에 싸고 붉은 빛으로 축을 만들게 되었다.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인생을 향해 미소지으면
미소의 반은 자신의 얼굴에 나타나고
나머지 반은 타인의 얼굴에 나타난다

雲門寺僧伽大學

38368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번지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봄호·통권 제144호·2018년 5월 10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명성(전임호) 고문·원법 / 편집·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동호 / 편집위원·자운, 승혜, 범능 / 사진·편집부 / 표지사진·동호(봄꽃처럼) / 삽화·도행, 여목, 도욱 / 편집디자인·Design MARU (디자인 마루) (053)426-3395